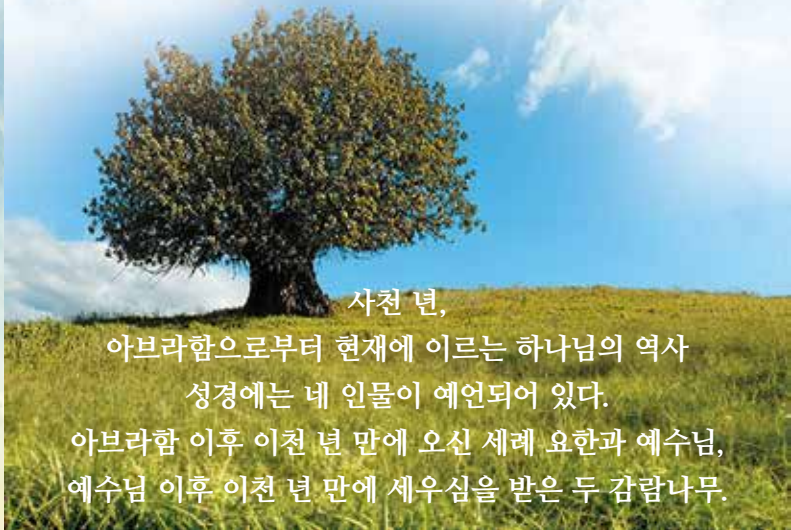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에덴의 메아리

10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에덴의 메아리

발행일 | 2012년 4월 5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89

홈페이지 | ieden.kr

이메일 | info@ieden.kr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346-5

ISBN 978-89-6449-223-9 (세트)

에덴의
메아리 10



저자 (1996년 당시)



스포츠타운 2층의 체육관.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 연수



체육관. 2009년 이라크 태권도지도자 한국 연수

Prologue

“기도문”

- 머리말을 대신하여 -

주께서 이 땅에 이긴자 감람나무의 역사를 일으키신 지도 어느덧 마흔 해가 지났습니다. 그것은 스가랴서와 요한 계시록에 예언된 역사로, 그 권능에 있어서 주님 당시를 방불케 하고, 그 심오한 말씀에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야흐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저희들을 이 역사에 불러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주시고, 큰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 수 있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주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주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저희는 성경에 예언된 두 종을 통하여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

해 온 사단의 세력을 발등상 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지상에서 마무리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영적인 씨를 뿌리는 앞선 역사의 주인공은 그 예언의 말씀을 왜곡하여, 성경에 명시된 경고의 말씀(계22:18-19)대로 그렇게 무참히 쓰러졌으나, 다행히 주님의 지시에 따라 무너진 데를 수보하여 “알곡을 거두는” 나중 역사가 이어져, 주의 피권세로 십자가의 군병을 단시일에 배출시키기 위해, 당신의 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야로 분투하고 있습니다. 생수와 안찰과 말씀으로 다듬어 세우는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는 따르는 양떼들에게 전무후무한 하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감람나무의 가지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로,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다는 말씀 그 대로임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주의 마이크가 되어 청산유수로 쏟아 놓는 즉흥적인 설교는 문자 그대로 오늘의 새로운 복음으로, 여기 열 권짜의 설교집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집에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무엇이며, 베일에 가려진 사단의 정체는 무엇이고, 오늘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소상히 규명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우주관과 역사관, 인간관 및 신앙관을 심도 있게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상에 계실 때의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여 뿔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어 영광 받으신 주님의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세상의 ‘주여, 주

여' 하는 자들뿐 아니라, 영의 양식에 굶주린 모든 사람들이 상고해야 할 지혜의 보고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이 말씀은 길이 남을 것을 저희는 이 역사에서 보고 들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감람나무 가지들은 어떤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로 싸워 이길 것입니다.

주님, 자고로 진리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이오리까? 주께서 일찍이 빛으로 오셨건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은 이 역사를 외면하고,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수모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당신의 종도 핍박과 환난의 화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당신의 종은 온갖 역경을 극복하여,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서서히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택입니다. 그만큼 저희 양떼들의 어깨도 더욱 무거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의 종을 따라 묵묵히 당신께서 가라 하시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험산 준령도 넘을 것이고, 세찬 풍파도 헤쳐 갈 것입니다. 이 설교집이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 은혜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는 그릇으로 자라게 할 뿐 아니라, 이 어지러운 세기에 진리의 금자탑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승전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각자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결같이 지켜 주시기를 소자는 간구하옵니다.

1996년 1월 21일 최 현

Prologue

“재판을 내면서”

기독어지러운 세태의 부산물이라고나 할까? 동서를 막론하고 사이비 종교가 성행하여, 추종자들은 날조된 카리스마의 우산 아래서 이른바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 그리하여 세인의 빈축을 사게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도 상세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매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감람나무 역사가 그런 사례이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 들어 쓰시는 큰 종으로, 성경 말씀이 뒷받침하고 명실상부한 표적이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가 담긴 ‘에덴의 메아리’는 좀처럼 널리 울려 퍼지지 못하여 이제야 본서의 재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주께서 감람나무를 통하여 전하는 이 귀한 말씀

이 좀 더 많이 읽혀 기독교의 진수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설교집의 재판을 도와주신 윤상학 박사님의 노고를 감사하면서.

2000년 성탄절에

최 현

Prologue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 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시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레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 (속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속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 (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 (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 (속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 (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 (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라고 하셨다. (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려듣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기도문 ... 06

재판을 내면서 ... 09

Prologue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11

Part 01.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01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22

02 그릇을 마련하라! 37

03 신의 움직임에 대하여 46

04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56

05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이다 68

06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자 75

07 영은 어떻게 교류되는가? 88

08 셋째 하늘에 대하여 98

Part 02.

변혁기의 새 복음

- 09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려면? 110
- 10 '옛 뱀'의 정체는 무엇인가? 119
- 11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하여 126
- 12 성경의 증거 141
- 13 영적으로 본 우리의 현실 152
- 14 왜 알곡성전인가? 167
- 15 재창조의 원리 174
- 16 변혁기의 신앙 186

Part 03.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

- 17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하신다 196
- 18 이긴자 감람나무의 시대적 배경 204
- 19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알라 214
- 20 주님께 필요한 성도가 되자 226
- 21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종 237
- 22 창조와 진화 245

Part 01.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 2. 그릇을 마련하라! · 3. 신의 움직임에 대하여
· 4.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 5.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이다 · 6.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자 · 7. 영은 어떻게 교류되는가? · 8. 셋째 하늘에 대하여

Chapter 01.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새해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 거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열성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간에 알곡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여러 해 동안 많은 시간을 공사에만 할애해 왔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일반교회는 나름대로 전도가 잘 돼서 몇몇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와도 표가 안 나지만, 우리 역사는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기가 무척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설사 들어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갖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까지는 음과 양으로 시험이 많은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는 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끌어가면, 설사 어느 정도 성공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역사는 인간의 생각이 미치지 어려운 그러한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또 이해한다 해도 사실상 다가와하지 않는, 그러한 악재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이 감람나무라는 말부터가 듣는 사람들에게 거슬립니다. 처음 감람나무 역사를 증거했을 때에는 생소한 점은 있었을지라도 의구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일어나는 우리 역사는 아무리 감람나무라고 해 봤자 상대방에게 주는 매력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쳤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끌어 가는 주의 종이냐 따르는 여러분들이 힘이 듭니다. 따르는 여러분도 산뜻한 맛이 들지 않고, 이끌어 가는 주의 종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우리가 납득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나님은 이상 중에 주의 종에게, 이 시대에 신앙을 다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우고 느껴야 할 내용들을 ‘체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선 역사에서도 ‘감람나무 체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서 저는 ‘체계’다, ‘섭리’다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지시하

실 때에, “이것은 내 섭리이니라.”, 또 “따르는 양떼들에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계를 심어라.” 혹은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85%가 체계가 섰느니라.” 이런 등등의 말씀을 곁들이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한 시대를 이끌어 가는 주의 종으로서, 그 시대적 배경이 저와 어떻게 직결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94년도 첫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위치를 한번쯤 짚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산골은 우리 중 누구도 몰랐던 장소입니다. 제가 이 알곡성전을 건축할 때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제가 이 성전을 세울 때의 설계로는 이 단상과 종각과의 거리가 60미터였습니다. 그런데 6자는 성경에서 마귀의 숫자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전체의 길이를 70미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실 때 타시는 점보제트기 크기가 바로 70미터입니다. 점보제트기의 길이와 이 성전 길이가 똑같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따진다면 그 2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이 알곡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2배 정도라면 노아의 방주는 대단히 큰 겁니다.

이 성전 자리에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단상 자리와 저 종각 자리에 있는 산소였습니다. 여기 말고도 중간에 여기저기 장소가 많은데, 하필이면 이곳에 산소를 썼을까?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이 산소의 시신을 정중하게 모시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 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학이 크게 발달한 이 시대에도 사진을 찍으니까 죽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잡지에도 나왔으니 여러분들도 더러 보셨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기 전의 모습으로 사진에 찍혔습니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앞선 역사와 우리 역사가 혼꾸멍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화입니다. 사진을 찍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모습이 나 빛이 찍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가짜 운운하여 말썽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에 대해 한 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 ‘지방’이라는 것을 쓰는데, 거기에 죽은 사람의 생년월일 같은 걸 적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죽은 날에 그 제사를 받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게 아니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사람을 주관하던 마귀가 제사를 받게 된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당이 배뱅이굿을 한다면, 배뱅이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배뱅이를 주관하던 마귀가 그 사람의 흥내를 그대로 냅니다.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제사상 위에 놓은 밥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다가, 제사가 끝나고 나서 밥을 보면 윤기가 다 사라졌다고 해서, 신이 와서 그 제사를 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항간에 전

해 내려오는 얘기들입니다. 무당이 되기 전에는 아무 능력도 없던 여자가 무당이 된 후에는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작두에 맨발로 서서 무거운 짐을 들고 춤을 춰도 발이 베이지 않습니다. 이걸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것 역시 신의 장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을 논하기 전에, 토속 신앙, 민속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들, 다시 말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되어 혼자서 바다 위에 실신 상태로 떠 있었는데, 이 사람을 여러 시간 동안 거북이의 등에 업혀 있다가 지나가던 배에 구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전부터 섬기던 신에게 그 아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의 도움을 받아서 거북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여러 시간 등에 업고 바다에 빠지지 않게 해 줬다고 해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주의 종이 지금 성령이 같이한다고 말하면 여러분이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무당이 여러분이 보는 데서 시퍼런 칼날에 맨발로 올라선다던가 하면 “어!” 하고 놀랄 수 있습니다. 또 앞선 역사처럼 “축농증이 있는 사람 나오십시오.” 해서 4, 5명 나오면 주물러서 ‘씩’ 입김을 분 다음에 뚫리면 “평 뚫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와아’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

한 가운데 진리를 논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만 가르치면서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대단히 미약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 이걸 능력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적을 요구합니다. 어떤 신비스러움이 나타나야 ‘야아!’ 하고 환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주님도 잘 아십니다. 주님 스스로가 이 땅에서 겪은 일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한 번 보겠습니다. 약장사가 약을 팔 때에 노래를 하고 북을 치면 어른, 애들 할 것 없이 뻑뻑하게 모입니다. 이 약장사가 노래하고, 북 치는 것은 약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을 마쳤을 때 “이건 훌륭한 약입니다. 이걸 먹으면 무슨 병이나 낫습니다.” 하고 선전하면 슬슬 뒤통무니 빼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노래하고 북 치고 장구 친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상 헛수고가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쿵쾅거리고 뚱뚱거리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모여듭니다. 그래 놓고 약 선전을 하면 또 슬그머니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친다고 하니까 모여든 사람이 하루에 보통 몇 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 다섯 덩어리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몇 천 명을 먹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한테 가면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준다고 해서 와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가버나움에 모였을 때 주님이 떡도 안 주고, 병도 안 고치고 하신 얘기가 뭐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

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주는 떡은 먹어도 죽지만,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느니라.”(요6:47-50 참조) 하고 영적인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웬걸, 떡 주고 병 고칠 때에는 아무 소리 없던 사람들이 바른 얘기를 하니까 싹 돌아섭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를 한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주님이 할 수 없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얘기는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육적인 혜택을 입을 때에는 좋아했지만, 사실을 얘기할 때에는 외면하는구나.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된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얘기는 바로 영에 관한 얘기니라.”(요6:63) 하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저처럼 영적인 말을 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선 육적인 얘기를 해야 좋아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와 닿기 때문입니다. 단에 서는 사람들은 무슨 설교를 해야 상대방이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교회에서는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유명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아, 오늘 은혜 받았다. 아, 흐뭇하다!” 이렇게 느끼도록 설교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교회는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심각하고 고달픈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구나 싫어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설교의 말씀을 하셨을 때, 단지 어떤 소득을 바라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듣기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마5:4-5) 이렇게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위를 맞춰 주시는 겁니다. 세리들에게는 세리의 일을, 농사꾼들에게는 농사를 짓는 얘기를, 장사꾼들에게는 장사하는 얘기를, 그리고 어부들에게는 고기를 잡는 얘기를 듣기 좋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어느 정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때 진짜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각기 메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노라.”(마10:38) 이런 말씀과, “모든 게 복이니라. 축복이니라.” 하는 말씀이 같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마10:34) 이 말씀은 어느 정도 가까운 측근들에게 하신 겁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계2:10) 이것 역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어야 한다.” 이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은 임의로 띠를 띠고 다니지만, 네가 원치 않는 띠를 띠 때가 온다.”(요21:18) 그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겁니다.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마10:39) 목숨과 맞바꿔야 한다는 신앙을 심기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면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 곧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주님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끌어 온 지도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오게 되면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사전에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할 때 감회가 깊습니다.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이상 중에 해 본 설교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신과 인간의 관계를 모르는 보수주의 신앙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바라고 요구하시는 바를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신앙 관념을 물리치고 주의 종이 가르쳐 주는 신앙 관념이 머릿속에 들어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무수한 갈등을 거쳐야 합니다. 새로운 진리를 얘기한다고 “웁소!” 하고 받아들여지는 줄 압니까?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이 모세 율법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죽인 것도 모세 율법에 의해서였습니다. 주님은 모세 율법에 의한 희생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걸린 것이 뭐냐 하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한다는 죄였습니다. 주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 보통 참람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들을 때에는 참람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

에게는 그게 참람된 말입니까?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천하에 죽일 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행적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진리를 심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적을 직접 행하셨겠습니까? 주님은 무수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걸어 다녔습니다. 베드로가 쫓아오다가 바다에 빠져 건져 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무렵에, 물에 빠지려다가 건짐을 받았던 베드로까지도, 닭 울기 전에 주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마 26:74) 신앙이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봅시다. 주님은 3년이라는 세월을 기적의 사나이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자 주께서, “하늘 아버지가 너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아들로 믿게 된 것이다.”(마16:17)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

의 주인공인 주님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시면 믿어지지 않는 게 신앙인데, 하물며 오늘날 이긴자의 역사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긴자가 안찰을 하고 생수를 만들고 신령한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갖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긴자로 믿게 된 것은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설득하고, 내가 설교해서 여러분이 날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바로 주님이 헤아리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를 믿게끔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놓으시면 여러분은 저를 안 믿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 역사에 오셔서 저를 따르는 양떼들을 자세히 봅니다. 떨어질 듯한 사람들, 간신히 떨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 등등을 다 봅니다. 하늘에서 감동을 주신 사람은 시험이 와도 이겨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하찮은 일 때문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은 억지로 안 됩니다. 하늘에서 합당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직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는,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하고 저 사이의 연결점이 뭐냐? 신입니다. 주님이 버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같아지

는 것입니다. 직분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과 저는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20여 년간 여러분에게 안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찰할 때 제 손만 움직인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연줄로 말미암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님에게 버림을 받아도 여러분이 저하고 떨어지는 거고, 또 제가 주님의 버림을 받아도 여러분이 저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안 됩니다.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물이 들어가야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가루는 엉기지 않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빈대떡도 만 들고, 수제비도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때 바로 여러분과 이긴자와 주님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찰은 저하고 여러분이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을 위해 주님이 저를 내세워서 쓰시는 것뿐입니다. 이걸 모르고, 저하고 헤어지면 ‘이영수하고 헤어졌지,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지 않고 저와 연결되었다가 떨어지면 저하고 떨어지는 걸로 끝나지만, 저한테 올 때부터 벌써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이끌려 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하고 떨어지면 주님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

사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대하게 봐 달라,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세상에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우리 주님은 왜 이영수에게만 하늘의 깊은 사정을 알려 주시고 보여주시는가? 딴 사람들도 기도하고, 성경을 놓고 연구하는데, 왜 하필 보잘것없는 이영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에겐 침묵하는가, 이런 궁금증도 생길 겁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인격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점이 있어서냐?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제가 주님께로부터 감람나무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상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이긴자로 쓰시고 심부름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려 주시고 일도 지시하시는 것이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과 저라는 존재를 놓고서 비교해 가면서 따집니다. 그걸 백 번 따져 봐야 거기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감람나무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되고 싶어서 된다는가, 남이 하니까 나도 하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것에게 감람나무 할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앞선 역사에서도 저보다 먼저 감람나

무를 자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다고 되느냐? 이제라도 감람나무 행세를 하고 싶으면 따로 해 보라 이겁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장로가 하든, 권사가 하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실질적인 주님과과의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람나무라면 감람나무로서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하느냐? 현재의 주님을 알고 증거해야 합니다.(계11:3-4)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긴자에게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계2:17) 분명히 이긴자 감람나무라면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남이 하는 얘기나 주워듣고 전하는 사람은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큰소리나 친다고 감람나무가 됩니까?

이긴자 감람나무는 순리대로 하나하나를 정착시켜 가면서, 주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어찌다가 병이 나았다, 한마디 빠죽 신령한 말을 했다, 이래서 감람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신앙 운동이 어떤 줄 압니까? ‘누가 병을 고친대’ 하면 ‘와아’ 그리로 몰려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권태가 나면, ‘어디에 신령한 목사가 있대’ 하면 ‘와아’ 보따리 싸 가지고 갑니다. 이처럼 만날 철새처럼 몰려다닙니다.

우리 역사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멍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면 주의 종은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책임져서 알곡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시작부터 끝까지 나한테 그 사람에게 만족

을 줄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이는 못 끌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도중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또 새로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도망가고 또 새로 오고, 그러면 한 사람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마포를 입게 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끌어가야 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양떼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주의 종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상대를 끝까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 대해 주의 종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생애를 마칠 때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일반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인이 100명이 왔는데 50명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100명이 오면, 150명으로 늘었으니까 부흥이 됐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책임지고, 이런 것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믿는 것이지, 책임질 일도 없고, 책임을 떠맡길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 역사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 나갑니다.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존재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그런 그릇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될 수도 없는 거고, 또 여러분이 외면하는데 주의 종이 아무리 만들려고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Chapter 02.

그릇을 마련하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16:12-13)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믿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자칫 잘못하면 신앙의 깊은 차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단이다, 혹은 사이비다 하는 말을 듣기에 딱 알맞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같이 변론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

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훌륭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님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음과 양으로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은 세계의 베스트셀러로, 제일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 중의 책입니다.

여기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성서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혹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서 단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과정을 군데군데 단편적으로 기록하여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나 그 성경은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다.”(요5:39)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모든 것을 다 아셨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늘의 섭리를 아시는 한계 안에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조차 다 하시지 못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들어 보았자 감당할 수 없고, 또 너희들에게는 해당치 않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도 이해하기 힘든데, 하시지도 않은 말씀까지 염두에 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끝 날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번은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들은 주님을 증거할 제자들인 만큼 좀 깊은 말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주께서 곧 세상이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 세상이 끝나는지 우리에게만은 알려 주십시오.” (마24:3 참조) 하고 말입니다. 주님은 솔직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에 대해서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세상 끝에 대해서 언질을 준 것은 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이다. 다니엘의 글을 읽고 깨닫는 자는 세상 끝 날에 대한 윤곽을 알게 된다.” (마24:15, 36 참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맡아 가지고 한 시대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들의 일을 하시는 것이지, 맡은 분야 이외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이 언제 끝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님은 언제 어떻게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마24:36)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어떤 선지지가 무슨 말을 했든, 다 주님의 말씀 아래 들어가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 엘리야를 믿는다, 세례 요한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세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의 한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끝에 관한 것은 모르셨다 치고, 그 외의 다른 말씀도 하시고 싶었지만 안 하셨습니다. 그럼 안 하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영원히 모르게 되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요 16:13)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서 듣는 것을 말하게 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요16:13)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면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독교계에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 말고, 더 깊은 말씀이나 장래 일을 소개한 자가 있었습니까?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의 역할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보혜사가 무엇이나?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주님이 지상에서 하신 말씀을 위주

로 해서 기독교가 퍼져 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하시고 싶어 했으나 못했던 말씀을 누가 드러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노라.” 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당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늘나라에 가서서 수많은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광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계5:9)** 이때 주님이 승리한 대가로 하나님께로부터 제일 먼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입니다. **(계5:1, 7)** 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아무나 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책에 무엇이 쓰여 있기에 일곱 인으로 봉했느냐? 세상으로 말하자면 일곱 개의 도장을 찍어 봉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한 인봉입니다. 완전하게 봉해 버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주님이 받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시니 **(계5:9)** 그것을 다 열어 보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내용들을 아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은 끝 날에 관한 것을 모르십니까? 아시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이 질문을 하니 모른다고 하

신 주님입니다. 그러면 책을 떼기 전에 인류에게 하신 설교의 내용 하고, 이 책을 떼 다음에 인류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운곽이 잡힐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우리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만 1,200만, 전 세계적으로 수 억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제가 오늘날 2,000년 만에 이 베일을 벗기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주님의 지시를 받았다 해도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천 년 시행해 온 할례를 폐지시키는 것도 물론 그 시대에 힘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하는 일보다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떠난 말씀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지금 너희는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들은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의 전부입니까? 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계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제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게 문제다 하는 겁니다. 마귀라는 존재를 상대하는 데 있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4복

음서 가지고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을 떠나서 마귀의 세계에 딱 갖다 놓으면 그것 가지고 안 통합니다. 아버지의 품안에서 아버지를 아는 정도의 말씀으로 길러 낸 것들은 마귀의 세계에 갖다 놓으면 마귀가 홀랑 잡아먹고 맙니다. 표범이 새끼를 데리고 다닐 때에는 적에게 새끼가 물려 죽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미가 잠깐 떠나면 천적이 당장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게 하려면 어미만큼 커져야 합니다. 적과 싸울 줄도 알고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혼자 돌아다니면서 자기 앞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슬하에서 어둠 속에 갖다 놓으면 마귀가 짓이겨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슬하에 있을 때에만 안전합니다. 이들은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서 익은 알곡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마귀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에게 조물주의 대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을 믿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을 대신해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군병을 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슬하에서만 자라는 자들이 백만 명, 천만 명 있어도 마귀가 잡아먹는다면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가 아니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계13:8)고 했습니다. 다 짐승에게 속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 역사는 그런 숫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사람이 만들어지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지고 안 됩니다. 믿는 건 되지만 싸우는 건 안 됩니다. 그것이 되게 하려면 먼저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왜 오늘날 주께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는 예수를 믿는 그런 차원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라도 1,200만의 소위 예수쟁이가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마귀에게 내놓아도 마귀를 쳐부술 수 있는 자를 만들려면 새로운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이긴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흰 돌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존경 받던 사람도 죽으면 마귀한테 사로잡혀 버립니다. 내던져지니까 영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그 마귀를 만나면 마귀가 찢찢해야 하는데, 마귀가 다 잡아 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의 시체가 썩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들은 아무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가 오게 되면 사람을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보혜사가 하는 말을 아무나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요14:17)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계2:7)

그릇이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그릇을 체계라고 합니다. 그 체계를 세워 나가기가 무척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소개한다면 쉽습니다. 누구나 듣기 좋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A교회에서 10년, 20년 믿던 사람이 B교회에 가서 들으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나 여기는 다릅니다. 나면서부터 장로교회에 다녔다, 20년 감리교회에 다녔다는 분들도 여기 와서 들으면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의 차원도 엄청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신 다음에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주님이 하신 말씀만 알고 있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일곱 인으로 봉한 내용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동안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나가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그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개하는데 그칩니다. 그것 가지고 마귀가 발등상 된다면 제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자신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Chapter 03.

신의 움직임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도 안 가고 듣기도 힘든 경우가 있었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내용도 때로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공감과 호응을 얻기 위해 주의 종은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만을 위주로 하지 않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도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옳다고 생각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너무나도 장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자제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성경의 밑받침에 의해, 조심스럽게 간간히 영의 문제들을 비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보고 느낀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듯이, 여러분들이 저

한테 들은 것을 제삼자에게 다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남들이, “너는 왜 하필이면 그 교회에 나가느냐?” 하고 물으면,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가 영적으로 여느 교회와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나간다는 설명은 하기 힘들어도, 은혜가 풍요롭다는 것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체계가 세워지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영의 문제를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눅8:30) 이것은 주님 시대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귀신은 뭘 뜻하느냐?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구절을 읽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귀신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눅8:31) 간구하는 귀신의 말이 나옵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 말은 요한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은 무저갱을 모릅니까? 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걸 주님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들린 사람이라, 그 귀신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 귀신이 미친놈 속에 들어가 그 마귀하고 주님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

구하니, 이에 허락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눅8:31-33)

여러분들, 지금 A라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하고 주님이 대화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상대하는 겁니다. 귀신이 공중에 떠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벌거벗고 다니는 미친놈으로, 힘이 장사입니다.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무덤 곁에서 잠을 자는, 다루기 힘든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속에 있는 악령이 주님께,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느냐, 나에 대해 간섭하지 마라.” 하고 주님에게 먼저 항의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그 항의를 받은 주님이 악령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네가 누구냐?” 하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이때 제 삼자에게는 주님이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령, 즉 귀신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이 사람이,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누구라고 대답했다면, 자기가 스스로 대답하지 않고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빌어 대답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정신 활동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좌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신경이나 뇌신경을 귀신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힘이 강하다면 그 힘은 귀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나가면 그런 기운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없어집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 받는 성령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방법만 다르지, 신의 작용이 다 같습니다.

주님이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귀신이 ‘많은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제자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귀신이 주님만 들리게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습니다.

그럼 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전과 라디오 전파가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들으려면 라디오를 갖다 놓고 사이클을 맞춰야 합니다. 전파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즉 수신기에 신호가 들어와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조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이 그와 같습니다. 다른 보혜사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하는 자가 없으면 보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보혜사를 못 보내신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겉으로 돌려서 마귀와 전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지금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은 압니다. 피차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이 온 것을 자기 육신을 통해서 나타내기 전에는 모릅니다. 모든 신은 그렇게 작용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

는 저대로, 또 하늘에서는 하늘대로 전부 각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보느냐 못 보느냐, 듣느냐 못 듣느냐,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귀신들이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무저갱은 주님의 제자들도 처음 듣는 말로, 미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가,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고 돼지 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떼에게 들어가 돼지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그 돼지 속에 그 귀신은 그대로 있습니까? 돼지를 죽여 버리고 나옵니다.

그럼 A라는 사람한테 악령이 들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괴롭히도록 조종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 후에 죽었다고 칩시다. 그 악령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조종할 때에는, 전에 조종할 때보다 더 잘하게 됩니다. 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령이 들어간 자를 쳐 죽여 그 악령의 세력이 더욱 커져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까? 가만히 둥니다. 그것이 악령을 다스리는 비결입니다. 신접한 상대방을 죽이면 세력이 확대됩니다. 100명 죽이면 다음에는 200명 죽여야 하고, 200명 죽이면 그 다음에 1,000명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싸움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안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 안찰을 받을 때에는 나중에 받을 때보다는 고통스럽습니다. 똑같은 손을 대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손만 대고 다음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주의 종이 단상에서 한참 열변을 토할 때에는 스스로 성령의 마이크가 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실제로 신이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오셔서 그러한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일반교회에는 해당치 않으니까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 방법으로 끌여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오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걸 ‘체계’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움직이는 내용이 다 그겁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자기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용을 당하는 위치이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상식을 가지고 주의 종에게 거기 맞추기를 요구해서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주님의 지시를 받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좋든 싫든 깨달아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부터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스스로 각본을 짜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내용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고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걸 누차 설명했잖습니까? 위에서 시키시니 우리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에 없는 겁니다.

그 따르고 안 따르는 걸 위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체계가 안 섰다’, 그걸 깨달아서 제가 하는 말을 따르는 사람은 ‘체계가 섰다’, 이렇게 하늘에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일반인들의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미친 사람 속에 많은 군대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언뜻 들을 때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한 사람 속에 악령이 하나만 들어가도 벽찬데, 많은 군대라면 1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는 악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니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악령이 됐든 성령이 됐든, 한 사람 속에 많은 영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미친 사람이 나눈 대화에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아 신앙 안에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에는 한 마리의 악령만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즉 많은 악령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 속에 있었던 악령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했다면, 무저갱이라는 곳이 마귀 측에서 볼 때 들어가기 싫은 장소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아까 미친 사람한테서 나온 여러 마리의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껏 잘 길러 놓은 돼지들이 미쳐서 비탈로 내려가서 물속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돼지 속

으로 귀신들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왜 비탈로 내달아서 죽었습니까? 그 속에 들어간 귀신들이 돼지가 잘 먹고 잘 지내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귀신의 습관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이 귀신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사람 속에 있기 전에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니까 군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군대들은 전에 어떤 최후를 당했겠습니까? 그 비탈에서 물에 빠져 몰사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물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강물에 빠져 죽으면, 다음에 반드시 다른 사람이 그 강물에 빠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그 귀신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인 겁니다. 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들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 돼지를 몰고 물속으로 줄행랑을 친 겁니다.

만일에 우리 역사 안에서 A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괴롭히고 있을 때 성령이 그 사람을 쳤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죽였다 이겁니다. 이 경우에 마귀가 부리는 신이 죽으면 괜찮은데, 사람만 죽고 그 세력이 딴 사람에게 들어가 역사하면, 하나님 측에선 방어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마귀의 전력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라 이겁니다.(마13:29 참고) 눈사람을 굴리면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방어만 하고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것도 주의 종이 이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하는 자들을 쳐버리지, 왜 그냥 놔두느냐고 성화입니다. 그건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옛날 모세가 무자비하게 숙청하였지만,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었잖습니까?

앞으로 영의 세계에서 신(성령)과 신(악령)이 싸우는 것을 3차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세 전쟁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신과 신이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싸우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혼을 통해서 싸우는 시대가 있고, 직접 영과 영끼리 싸우는 시대가 있다는 3단계 논리를 제일 먼저 계시록 강해의 서두에 알기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은 그걸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영하고 주의 종에게 같이 하는 영이 오늘날 까지 싸우면서 사실은 주의 종이 여러분을 평정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안찰이 뭐냐? 여러분 속에 있는 영하고 저와 함께 하는 영이 같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안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영하고 주의 종에게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영을 주의 종과 같이 하는 영으로 바꾸려고 여러분에게 안찰을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역사입니다. 또한 역사하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긴자를 따르면서도 이긴자에 대한 판단을

어디에 두고 내리느냐 하면, 바로 성경에 두고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 오늘날 이긴자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긴자가 하는 역할이 모세 율법 아래 있다면 그래도 무방한데, 이긴자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일이라면 하늘에서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긴자는 색다른 역할을 하도록 각본이 돼 있습니다. 이긴자가 누가 됐든, 지상에 나타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좋아하는 노선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인도 많이 모이고, 핍박도 없고, 조롱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의 각본은 그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우리는 하늘에서 정해 준 각본대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따르던 사람도 체계가 서 있지 않으면 의심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측에선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해가 가는 사람은 이쪽 편이 되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저쪽 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신의 움직임에서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Chapter 04.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오늘날까지 기독교 율타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충성을 하면서 기초를 닦아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기준은 변치 않고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의 생활양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자연은 똑같습니다. 태양은 그 태양이고,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여건에 따라서 생활이 변합니다.

어둠이 빛을 대적하는 것은 불멸의 원리요, 원칙입니다. 우리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닙니다. 우리는 빛도 될 수 없고, 어둠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그런데 빛의 신하고

어둠의 신이 우리 인간을 자기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어둠에 속하게 될 것이냐, 빛에 속하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싸우는가? 빛과 어둠은 화합할 수 없는 숙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인간을 중간에 두고 양자가 싸울 때, 우리는 자기 존재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렘32:27)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육체를 내게 속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간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뭘 필요로 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육체를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앞으로 너희 속에 있는 혼을 필요로 하게 된다.” 해서 역사를 새롭게 전개하실 때에는 이제는 인간의 육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인간의 육체는 무익하니라.”(요6:63)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을 중요시했는데, 주님은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밝혀집니다. 주님

은 그 대화에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렸던 모든 규례들이 메시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바뀐다고 했습니다.(눅16:16) 이런 시대를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예수님 시대 외에도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많습니다. 그 하나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계10:7)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비밀이 있다 이겁니다. 그 예언한 말이 이루어지려면 그 예언을 이루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리이러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했다면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말은 응해지지 않습니다. 백 년, 천 년이 가도 응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인을 해도 그 말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나를 나사렛 예수라 해서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나 인간 예수는 알라 주지 않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모든 기적을 봐서 너희들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요10:37-38 참고) 이런 의미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읽어 드린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주님의 골칫거리인 마귀라는 존재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찮게 여기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아는 게 하나님과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주님, 이 두 분만이 우리와 교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가까이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이 가로막는 세력도 알아야 합니다.

병아리들에게는 길러 주고, 보호해 주는 주인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나 독수리가 채어 갈 때 주인이 완벽한 방어를 할 수 없는 처지라면, 이때에는 병아리가 자기를 채어 가려는 매나 독수리가 하늘 꼭대기의 어디서 날아다니나, 언제 자기를 채러 오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울타리나 망이 다 돼 있어서 독수리가 아니라 늑대가 와도 채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인도 편안하고 병아리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못하여 주인도 언제 어느 때 병아리를 놓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 병아리도 하늘에서 빙빙 도는 게 자기를 먹이로 삼는 솔개요, 올빼미요, 독수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잡혀가면서 “주인님! 주인님!” 해 봤자 이미 때가 늦어 소용없습니다. 주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모르고는 견뎌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주님만을 아는 차원에서 신앙을 지켜 왔습니다. 그래도 무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주님이 인정하시고 보호해 주시면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변하여 주님이 일일이 관여하시지 않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언적인 증거자에게 맡길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 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아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때에 나를 좇는 모든 인간들을 인도한 것처럼, 이기는 자가 나타나면 그도 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계2:26-27, 3:21 참조)

그 예언된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믿는 사람들을 지켜 주고 보호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긴자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아버지 대신 내가 하듯이, 이기는 자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대신 일할 것이다.” 해서 이긴자에게 맡겨 주시면 이제 주님은 여태까지 하셨던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성서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오늘날 감람나무 시대에 아무리 잘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다 결국은 헛다리를 짚고 마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어둠과 빛은 서로 뺏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육체의 하나님으로 움직일 때에는 인간의 육체를 뺏으려고 마귀와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시아 시대에 와서 싸움의 양상이 바뀝니다. 빛과 어둠이 인간의 정신, 혼을 서로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주님은 하나하나를 점령해 들어갑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육체는 순교를 당하게 하고, 혼은 주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초입니다.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준행할 때처럼 상대방이 눈을 치면 눈으로, 골통을 치면 골통으로 갚아 버리는 게 아니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고, 돌로 치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마16:25) 바로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다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두 배로 갚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랍 민족을 상대하여 6일 전쟁 때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이런 보복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자기 나라에 핵무기를 한번 쏘면, 자기들은 열 번, 스무 번 쏘서 박살을 내버리는 무서운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민족을 건드렸다가는 그렇게 당합니다. 그

들은 단결력이 대단합니다. 유대인을 잘못 건드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갑니다. 미국 월가 같은 데서도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만일 동족 중에 누가 비참하게 어떤 깡패에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 깡패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민족은 그렇게 강합니다. 기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법도란 뭐냐? 이미 언급한 대로 상대방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으라 이겁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 주라 이겁니다.(마5:39-40)

그럼 이제, 뺏고 뺏기는 싸움 속에 사실상 어떻게 뺏고, 어떻게 뺏기느냐 하는 어둠과 빛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이쪽으로도 뺏길 수 있고, 저쪽으로도 뺏길 수 있는 인간은 중간에서 그걸 자세히 모르면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는 건지, 빛에 속해 있는 건지, 구분을 못합니다. 빛과 어둠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을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긴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님이 직접 다 스렸습니다. 그러나 이긴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긴자가 나타났을 때에 주님이 직접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긴자에게 맡겨 주신다고 했습니다.(계2:26, 3:21 참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시대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쪽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오늘의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저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를 이해 못하면 저를 따라오기 힘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해석하다 마음에 안 들면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긴자가 나타나게 되면 주님의 권한을 이긴자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래서 앞선 역사에서 주님의 권한이 박아무개를 통해서 움직여졌던 겁니다. 남이 볼 때에는 사람이 움직이지만, 영적으로는 신이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긴자가 누가 됐든,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의 것, 즉 주의 권세가 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처럼 지상에 주의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내려다보십니다. 주님의 권한을 맡아서 움직이는 자가 나타나면 주님이 직접 손을 대실 수가 없습니다. 언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깐. 이쪽도 주님의 것이고, 저쪽도 주님의 것이면 어지러워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옳은 건지 알 수 없어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뭘 가지고 만들어 낼 겁니까? 이 나팔도 저 나팔도 다 주님의 것이라면, 헛갈려서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을 봐야겠습니다. 앞선 역사에서 이긴자가 나타나니까 그에게 당신의 권한을 주셨습니다.(계

2:26) 그리하여 그는 사실상 주님과 비슷한 권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긴자가 나타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이전과 똑같은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주께서 사람들을 전과 같이 직접 대해 주신다면 아무 상관 없겠는데, 주님은 이미 손을 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상에서 모릅니다. 주께서 맡겨 주셔서 맡은 사람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만 압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어느 교회의 촛대가 옮겨졌다, 어느 교회의 십자가 위에 마귀가 앉았다, 이런 설교를 했던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폭탄선언을 하여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은 메시아 시대이므로 예루살렘이나 신당에 가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4:21) 당신이 그 모든 제사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러 왔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제사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당시에 통하는 얘기입니까?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예언적인 메시아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이긴자가 나타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주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사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움직임을 심상치 않게 봤습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가서 들어 보고, 병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므로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방인일지라도 저에게 은혜를 좀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나를 찾는구나. 이 사람에겐 은혜를 줘야겠다.’ 하고 주님이 하늘에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오냐. 고넬료야, 은혜를 받아라.” 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지상에 계실 때 베드로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없을 때 네가 내 대신 지상에서 한동안 치리자가 되어라.” 하는 뜻에서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마16:18)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천국열쇠를 맡겨 줄 터인즉,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6:19) 다시 말해서, ‘네가 땅에서 상대방을 용서해 주면 내가 그를 용서해 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넬료에게 비몽사몽간에 지시하십니다. “옴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거라.”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특별히 계시를 줍니다. 왜?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에게 절대로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걸 잘 아는 주님이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광주리에 부정한 음식이 담겨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조상 대대로 부정한 음식을 만져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왜 그걸 먹습니까?”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결케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행10:15) 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청지기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곧 알아챱니다. “아, 이방 사람인데 날 찾아왔구나. 모셔라.”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은혜 받도록 주님이 지시하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에서 받은 은혜가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도 임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즉흥적으로 하신 약속도 그대로 지키신 겁니다. 하물며, 요한 계시록에 ‘이긴자가 나타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그걸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긴자의 권한은 곧 누구의 권한입니까? 주님의 권한입니다. 여기서 이긴자와 어둠과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때 이긴자가 상대방을 뺏으면 빛으로 가는 거고, 놓치면 어둠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주님이 앞선 감람나무의 역사가 무너진 이후에도 또 하나의 감람나무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시고, 지극히 적은 숫자라도 확보하고자 안간힘을 쓰시는 것은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Chapter 05.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고전15:29)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입니다. 한편, 최고의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또 죽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반가운 말 중의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 위주가 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종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고전15:31)고 말하였습니다. 참으

로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 생활철학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줄 압니다. 바울 시대의 신앙 운동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그 결과 영의 세계에 가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떠냐? 영의 세계보다도 대다수가 현실적으로 ‘내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영의 세계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지,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6:33)고 했습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최대의 선을 행하는 것처럼 자부하는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영의 세계의 소망이기에 고생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영의 세계, 곧 하늘나라가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고전15:19)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할 게 없습니다. 그들은 거위가 살아 있는 동안에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복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에 들어온 여러분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을 만난 다음, 여러분은 대다수가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입을 걸 입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지시에 나름대로 순종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따르려고 힘써 왔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곤고함을 달게 받아 온 양떼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죽음 다음에 가는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영의 세계에서 혜택이 없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스러울 것입니까!

영이 무엇이나? 빛이 우리에게 올 때 태양은 보이지만, 빛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몸에 닿는 것은 느껴집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엄청나게 큼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려면 8분 25초가 걸립니다. 영은 광속도, 즉 햇빛보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아도, 몸에 와 닿으면 감각에는 그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신이 어마어마한 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와 닿을 때,

이슬과 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호14:5) 그러나 이슬은 아닙니다. 이슬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이 왔다,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태양이 비치면 우리가 따스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 닿을 때, 느낌이 있어야 우리가 신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들에게 신을 보낼 때 이렇게 느껴지도록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에서 영이 떠날 때, 그 영의 속도는 광속도 같은 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순식간에 여기 가고 저기 갑니다. 그러니까 속도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신다고 할 적에는 영적인 차원에서만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죽자마자 금방 어느 장소에 왔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움직이실 적에 10년, 20년이 주님에게는 금방 지나갑니다. 영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했다면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말합니다. 이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엄청난 빠른 속도의 영적인 움직임이 같은 시간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가 친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 작별 인사를 했다면, 그 사람의 영하고 이 사람의 영의 만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시간을 따져 보면 이 사람이 꿈꾸었을 때 그 친구가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그 시간이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텔레파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영이 바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죽음이란 우리에게 얼마나 궁금한 일입니까? 안찰이 뭐냐? 주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 주님이 데려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면 다른 신의 종(줄개 마귀)들이 와서 데려가게 됩니다. 이때 그는 자기 실체를 비로소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많기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전생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 가서도 자기의 전생을 일일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나오면 다 나타납니다.

누가 세상을 떠날 때에 세마포를 못 입고 은혜만 받았다면, 천년이 차기까지 음부에 가서 일단 대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지배자가 그 사람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만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내가 여러분에게 되풀이하여 말하는 신의 ‘룰’(규례)입니다.

만약에 50%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음부로 가면, 어둠은 그 50%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는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자보다 달갑지 않습니다. 음부는 빛을 갖지 않아야 유리한 세계입니다. 빛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어둠의 세계

에 가면, 그는 불청객이므로 어둠의 세력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역사의 초창기에 요한 계시록을 강해할 때, 하나님의 신과 어둠의 세력 사이에 ‘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왜 ‘물’이 정해져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사람을 끌어가려면 사람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야 하고, 빛이 사람을 끌어가려면 빛에 속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도 이런 함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는 심판대 앞에서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염소와 양을 추려냅니다. 염소와 양은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언뜻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는 갈라집니다.

예수도 모르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사람과 연결된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 추도 예배를 볼 때, 그 추도 예배는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지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새까만 숯덩이에 불과했지만, 추도 예배에서 그를 위해 30%의 변호가 하늘에 올라가 있다면, 30%의 혜택을 그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 죽은 자가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 받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한 것입니다.(고전15:29)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영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죽고 난 다음에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령)이 인간에게 와서 어떤 느낌을 줄 때에는 그 장본인은 신을 받은 겁니다. 그 신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료를 주시면서 “내게 필요한 새 생명을 만들어다오.” 하고 당부하신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만들라는 지시를 받은 종이 이긴자 감람나무 외에 누가 있습니까? 어디라도 가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목사가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까?

5별관의 건축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겁니다. 이런 공사를 위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주의 종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제가 자의로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어찌고저찌고 합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저한테는 따질 것이 없습니다. 따지려면 기도로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니까.

Chapter 06.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자



계시록에 보면 심판하는 왕이 갖고 있는 책을 곧 생명책이라 하고, 그 옆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계2:12) 이 밖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계21:27)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 심판하는 왕 권세를 가진 자가 갖고 있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14만 4천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14만 4천이 갖고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생명책이 요한 계시록에는 딱 부러지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즉 직접 여호와를 알현할 수 있는 자격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입니다.(계

22:4, 14:1, 21:24-27 참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어 하늘에 간자들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있으며, 이들은 앞으로 엄청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엄청난 전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일천 년이 다 찬 다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짐승이라는 존재는 음부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괴수에게서 모든 권세를 받아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계13:4) 다시 말해서, 음부의 권세를 도맡아서 전쟁터에 나오는 마귀의 이름을 성서에서는 ‘짐승’이라고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게 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14만 4천, 즉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과 대접전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과는 달라서, 어둠과 빛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베풀어집니다.(계21:1) 다시 말하자면, 짐승의 권세가 꺾이는 날에는 음부의 권세가 꺾이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꺾일 때 비로소 음부의 지배 아래 있던 모든 영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계2:12 참조)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인데, 문제는 그러한 경륜을 오늘날까지 수많은 역조창생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 깊이 생각하기에는 성서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에 죽든, 앞으로 죽든,

혹은 수천 년 전에 죽었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생명체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인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과, 또 여러분이 앞으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음부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짓기 전부터 그 세계는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인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그 경위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세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창1:26) 그 음부라는 세계와 하늘나라라는 세계를 우리가 논하고 싶어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또 관여하고 싶어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인간들에게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둠은 이런 거구나’, ‘빛은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빛이라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었고, 어둠과 빛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빛에 속하려면 이러한 자격이 갖춰져야 하는구나, 어둠에 속하는 건 이러한 경우구나, 하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음부는 음부대로 존재하고, 천국은 천국대로 존재하여 서로 아무 상관도 없다면, 우리도

빛과 어둠의 싸움 중에 끼어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상 당신 편에서 어둠을 대항해서, 이렇게 해다오, 저렇게 움직여다오,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 마귀라는 3각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이 우리만 아는 순조로운 사이가 되지 못하고 삐거덕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시게 되니까,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이 우리를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는 우리에게 요구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 요구 사항이 뭐냐? 어둠을 상대로 해서 싸워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부가 형성될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교류는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류 자체가 사실상 순조롭지 못하고 가로막힙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태초에 우리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만세 전에 정하신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전2:7)**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누구를 의식하고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대화를 나누려고 지으셨다면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 전부터,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앞세워 싸워 보자’ 하고 사람을 지었

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상대하는 존재입니까? 마귀를 상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눈만 뜨면 ‘하나님, 하나님’ 하라고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귀를 상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게 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시작이 이렇기 때문에 마귀를 상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꾸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근본을 모르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저 선진 국가의 국민들은 대다수가 기독교를 믿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죽은 신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억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는 박사들, 선교사들, 훌륭한 인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담을 왜 지었는지, 그 의도를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기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야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모르고 지나온 겁니다.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금식 철야하면, 이것이 최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누가 알았느냐? 바로 마귀가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 입장에서는 방치할 처지가 못 됩니다. 상대방이 자기에게 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로 끝난다면 마귀가 남의 일에 콩 놓아라, 팥 놓아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해코지하고자 상대방이 작당을 한다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도전이 들어오기 전에 선수를 쳐야 합니다. 그 선수 친 것이 뭐냐 하면 에덴동산에 무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무기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기 쉽게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는 신끼리의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누가 받습니까? 마귀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사전에 좌절시켜 버린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나에게, “야! 저놈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좌절시키다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하시다는 거냐?” 하고 세상 사람들은 항의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마귀는 선수를 쳐서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대로 안 되어 여건이 불리해지니까, 인간을 홍수로 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왜 인간을 지었던고?” (창6:7)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계획대로 된 겁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오늘날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집니다. 그게 쉬운 얘기 같으면 제가 다 짐을 안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제 얘기가 박혀야만 그 다음 얘

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마귀라고 이름을 붙이신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마귀라고 칭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제일이지만, 마귀를 섬기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제일입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을 마귀가 해코지합니까? 당연히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누가 괴롭힙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누가 싫어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무 이해 관계 없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를 오고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지으심을 받을 때부터 3각 관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 마귀라는 존재가 없어지므로 하나님과 믿는 사람만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사형통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인간을 짓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만 믿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귀의 신을 모릅니다. 배운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마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백만 명, 천만 명이 믿어도, 마귀를 상대로 하는 인물은 순교자를 제외하고는 만들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

리켜 하나님께서는 “내 섭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부터 사람을 내세워서 마귀를 대적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지 못하는 인간들이 57억이 있으면 뭐 합니까?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마귀의 세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요즘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금까지 지옥이 마귀의 세계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마귀가 다스리는 곳인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반대로 안 겁니다. 목사들도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믿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당사자가 모르는데 그 밑에 신도가 어떻게 압니까? 30만 명이 있어도 30만 명이 다 모르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아는 이가 있어야 열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알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가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종이 성서의 심층부를 조심스럽게 열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왜? 지금까지 내려온 보수주의 신학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기독교에 타격을 가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암만 옳은 얘기라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이단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외눈박이만 살고 있는 데 눈 두 개 달린 자가 가면 병신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에는 한쪽 눈을 봉대로 감고 한쪽 눈만 있는 척하고 한동안 살아야지, 눈 두 개를 가지고 다짜고짜 나서면 오히려 눈 하나짜리들이 그를 괴물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음부는 누가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마귀입니다. 되풀이하여 말하지만, 마귀는 인간이 지음받기 전부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이 죽으면 인간을 데려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즉 음부는 마귀가 인간을 빼앗아서 자기 세계에 집어넣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에서 다시 뺏어 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음부의 권세자를 항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고 단정하신 것입니다.(계20:14)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믿지, 이영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까다롭고 복잡한 하나님을 믿을 건 뭐냐?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신과 신의 대결은 치열합니다.

음부는 마귀의 세계입니다. 음부의 세계에서는 누가 왕이냐? 용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광채가 나는 곳입니다. 대단히 찬란합니다. 음부의 세계는 어떠냐? 어두컴컴하고 안개가 자욱한 그런 세계입니다. 세계 자체가 정반대입니다.

음부의 지배자는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을 누가 좋아하느냐? 물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빛으로 화해지면 빛의 세계로 가고, 어둠으로 화해지면 어둠의 세계로 갑니다. 어둠을 소유한 자를 빛

의 세계에 데려갈 수 없는 거고, 빛을 소유한 자를 어둠의 세계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걸 룰이라고 합니다. 신의 조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빛의 지배자나 어둠의 지배자가 서로 지킵니다.

빛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바알’이 뭔지 압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바알 신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부터 골통을 깨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걸 모세가 이어받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인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사2:20-22 참조)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하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내가 아들을 기르듯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했는데, 제대로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광야에서 험하게 쓰시던 채찍을 그대로 쓰도록 선지자 모세에게 지시하셨다는 걸, 즉 율법을 그대로 지키게 하셨다는 걸 내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잘 보였으면 “이제 너희들을 다 편안하게 해 주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꼭 조여 버리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풀어놓았습니다. 그거 푼다고 소위 민노라는 자들이 일제히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폐지시켜 풀었습니다. 바울이 “할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폐지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할례 없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근원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모르니까 무조건 자기들이 정통파다 이겁니다. 그들은 사람이 백만, 천만 명 모이면 그게 무슨 위력이나 있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을 상대로 해서 아담을 지으시니, 마귀가 손을 쓴 것이 에덴동산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도전을 차단시킨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고.” 하고 한탄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창6:6) 그렇다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겁니다. 계획대로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꾸준히 밀고 나와 금세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아담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니,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봐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담이 하나님을 보고 숨었습니다.

“네가 왜 숨느냐? 네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예,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하와 너는 어떻게 해서 먹게 되었느냐?”

“예, 뱀이 먹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저주를 내리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쫓겨난 아담이 쫓겨난 상태로 잠자코 있었느냐? 아닙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가 살던 에덴동산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어저께까지 당신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막습니까? 아담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무슨 힘이 있다고 막

습니까? 들어오나 나가나 아무 상관도 없으면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개인적으로 에덴동산에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타격을 줄 힘을 가진 배후 세력이 아담을 앞세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먼저 먹어야 삽니다. 두 번째로 자야 합니다. 셋째, 남녀가 사랑도 합니다. 그 밖에 권세욕, 명예욕, 재물욕 등 욕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에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 더 크게 말한다면 신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우니 도와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이러저러하니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 다오.” 신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신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음부는 마귀가 자기와 호흡을 맞춰줄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세계의 지배하에 둡니다. 이를 위해 아담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까지도 끌어다가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죽어도 끌어가지 못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도 주님만큼은 음부에 끌어가질 못합니다. 인간은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가 끌어가지만, 주님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못 끌어갑니다. 그래서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 분을 통해서 마

귀에게 끌려간 영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마태가 이상 중에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마27:53) 그건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을 피로 사서 지성소에 데려가신 겁니다.(계5:9)

Chapter 07.

영은 어떻게 교류되는가?



세상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결이 되게끔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중보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 즉 아담, 하와가 살아 있는 비결은 무엇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담, 하와라는 이 생명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그 능력이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이 사람과 다른 삼라만상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짠 맛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사람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주의 신비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 은하계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천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주의 신비가 밝혀지게 되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여 기록하게 하신 우주관이 지금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딴 데는 못 가도 우주 센터에 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우주 센터’에 일부러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 나사(NASA)가 있는데, 워낙 넓어서 버스를 타고 돌며 설명을 해 줍니다. ‘케네디 우주 센터’의 넓이가 어린이 대공원의 100배입니다. 어린이 대공원도 130만 평으로 꽤 넓은데, 미국의 우주 센터는 1억 3천만 평이나 되니까 그 100배나 됩니다. 그 넓은 지역에서 우주 왕복선을 제작하여 쏘면 그게 우주 궤도를 도는 겁니다.

지상에서 로켓을 쏘아 올려 우주인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2시간 30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돌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곳 온도는 섭씨 영하 100도입니다. 달나라에 가면 더 심합니다. 낮에 햇빛이 비치면 달이 굉장히 뜨겁고, 밤이면 영하 200도까지 내려갑니다. 또 우주복을 거기에 대응하도록 만들어 우주인들이 바깥 세

계를 보게 합니다. 지구상에서 별들을 보려고 하면, 지구의 대기나 먼지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망원경으로 천체를 보면 아주 잘 보입니다. 요즘은 우주가 팽창하고 별이 생성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과학이 극도로 발달해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던진다고 했습니다.(계20:14) 둘째 사망이 뜻하는 것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로, 지옥도 감히 우리 인간들로서는 논할 수도 없고, 근사치조차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은하계를 벗어난 세계가 바로 음부입니다. 그 음부의 세계를 벗어나야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 지옥이나 천당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이 전 세계인 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빛의 신이 됐든, 어둠의 신이 됐든, 사람들에게 신이 옵니다. 그런 느낌을 의식할 때 그 신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디서 이뤄지는가 하는 겁니다. 신은 신끼리 통합합니다. 육하고 신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신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속에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보내 주실 적에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경우가 있고, 간접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직접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전기

가 변전소를 통해서 나가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나갑니다. 이 변전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바울이 손으로 안수하며 성령을 받더라.” (행19:6)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때에는 바울의 사이클하고 주님의 사이클이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위에서 보내면 이쪽에서 받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해 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보내 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겁니다. 금 같은 기름이 두 감람나무에게서 등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즉 금 같은 기름은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피권세로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는 것을 오늘날 우리 역사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교회 신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이슬을 받았느냐?” 하고 물으면, “이슬이 뭔지 모릅니다.” 기성교인들은 이렇게 대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받아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이슬이 구나!” 하고 말입니다. 앞선 역사에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신은 신끼리 통합니다. 하나님이나 마귀가 사람과 교류하고 싶으면 사람 속에 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류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됐든, 마귀가 됐든, 신이라야 서로 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너희 아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서로 대적하게 된다.”(마10:34)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주의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사이는 통용이 안 되고 부딪치니까 멀쩡하던 부자지간이 시끄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영적인 말씀입니다. 육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는 다 각각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오시면 안찰을 받게 됩니다. 이 안찰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안찰을 할 때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하늘에서 보내시고자 하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가 그걸 받아 가지고 이렇게 나눠 주어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안찰을 통해 은혜를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요소를 받게 되니, 여러분의 소망과 생각과 감정이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류를 할 때, 그 혼과 교류를 하십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람이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일지라도, 바람을 맞는 사람은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요3:8) 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눈에 안 보일지라도 받는 사람

은 자기 몸에 느낌이 오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이라고 주님은 알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이 보내신다면 우리가 신이 온 것을 압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게끔 신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신을 너희에게 보낼 때에는 너희들이 마치 이슬을 받듯이 느낌이 있고, 뱃속에서 강이 흐르듯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백합화처럼 향기가 나게 된다.” (호14:5-6, 요7:38 참조)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기도를 했는데 뭔가 분명히 자기 머리를 쓰다듬는 것같이 느낍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느낌을 주신 겁니다. 그래야 신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설명한 대로, 이를테면 전파가 올 수 있는 수신기가 주의 종한테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의 종에게 수신기를 주신 겁니다. 이때 주의 종은 위에서 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안찰할 때 이 사람에게 지금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걸 알고 여러분에게 손길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느낌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느낌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주 안찰을 받으면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같은 모습으로 변해 갑니다. 그 이유는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여호와에게 필요한 군병들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만들

라 한다고 만들어집니까? 재료가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라 하실 때에는 이미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와 있어야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이리이러한 재료를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고자 그 재료를 가진 사람에게 모여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 재료에 의해, 이를테면 국수라도 얻어먹자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 재료는 주는 권한을 맡은 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수통에, 원액이 몇 통이다, 춘천 몇 통이다, 부산 몇 통이다 하고 써 놓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주의 종이 그냥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200통짜리에 한 통짜리 축복이 들어가면 됩니까? 그걸 다 나누면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200통이다 하고 생각하는 순간 200통의 분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으로 가는 어떤 사람이 “두 달 있다가 오겠습니다.” 하고 물통을 가져오면, 두 달 동안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게 해 줘야 겠다, 하고 주의 종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즉시 하늘과 교류가 이뤄집니다. 그리하여 물통에 두 달 치의 생수가 담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물통을 가져가면 비행기를 타든, 잠수함을 타든, 어디를 가든지 그 물통은 하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축복을 받은 물통을 아무 데나 둡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생수의 귀중성을 알고 가져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당장 시험해 보십시오. 오늘이라도 조그마한 통에 물 안 담아도 좋습니다. 그 통에 저한테서 축복을 받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무 물이라도 좋으니 담아서, 죽은 사람이 있으면 발이나 그 밖에 어디든지 발라 보십시오. 그러면 바른 자리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안찰을 받는 3, 4초가 짧은 것같이 느껴져도, 1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보다 몇억만 배 빠른 성령이 여러분의 혈관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초 안에 완전히 상대 안에 있는 악령이 영적으로 작살나는 겁니다. 이건 신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신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의 종이 가면, 그 가정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젠 총회장님을 자주 모셔야겠다.” 그러라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찰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영적으로 주의 종의 슬하에서 살아갑니다. 암만 못 받아도 1년에 두세 번은 안찰을 받습니다. 6개월에 한 번 받았다 해도 6개월 동안 범죄한 것이 다 제거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있습니다. 원죄와 유전죄가 그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한 번 안찰을 받아서 사해지면 다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죄가 담겨집니다. 그걸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사함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실 땐 하늘과 땅만

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죄와 유전죄를 가진 사람이 100만 명이 모여서 “아이고, 주여!”를 연발하면서 땅바닥을 치는 것보다 원죄, 유전죄를 사함 받고, 자범죄는 있을지라도, 열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늘에서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다른 보혜사 성령의 조화입니다.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속4:6)

여러분이 오늘날 이 역사에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하나 하나 배워 나갑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주관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계1:8) 음부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뭇에 던져지면 어둠의 세력이 끝장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끝장내는 작업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신과 신의 대결입니다. 우리 인간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영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가를 아셔야 합니다.

다행히 오늘날 우리 역사는 저 같은 부족한 것이 중보의 역할을 맡게 되니까 주께서 권한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재료를 가지고 움직여도 저는 육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세상을 사는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늘의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갖고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라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긴자

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다,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을 선출할 때 각국에서 추기경들이 모여 쑥덕쑥덕하면서 뽑습니다. 이때 굴뚝에 연기를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황이 당첨된 걸 압니다. 이윽고 교황청이 발표를 합니다. 누가 교황이 됐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교황은 이처럼 사람이 뽑는 겁니다. 그리하여 5억의 천주교인들이 그를 하늘같이 여깁니다.

하나님의 증은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 약속하십니다. 아무 종에게 이걸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걸 받은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는 겁니다. 사이비가 아닙니다. 갖고 있지도 않은 자가 갖고 있는 척할 때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여 년 동안 생수로 여러 가지 혜택을 안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근황을 여러분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주의 종에게 무얼 더 원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슌4:6) 그러니 세상에서 어찌고저찌고 하는 얘기들은 이긴자 앞에서는 애깃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Chapter 08.

셋째 하늘에 대하여



“십사 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고후12:2)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십사 년 전에 그가 자진해서 간 게 아니고,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이끌려갔으면 이끌어 준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그 상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세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10:28)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육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문제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의 교파가 있지만, 사람이 죽은 후에 송장

을 놓고 생수를 쓴 예는 앞선 역사와 우리 역사 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기독교도 그렇게 시체를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선 역사와 우리 역사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혹시 흉내 내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봐도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선 역사와 우리 역사, 즉 감람나무의 역사 외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끌려간 사람이 누구였든 간에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이유는 끌려간 그가 느낄 때 하늘을 셋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째라는 말을 한 겁니다.

오늘날 교인이 죽으면 ‘천당 갔네’ 하고 말하지만, 바울 시대는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영혼이 있느니 없느니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도 파가 갈려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다, 바리새파다 하고, 서로 부활이 있다 없다 하면서 논쟁하던 시대에 영의 문제를 얘기해도, 그들은 알아들을 정도의 성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고, 또 신앙적으로 깊은 차원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간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죽게 되면 지성소든 음부든 가게 되지만, 그것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대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끌려간다는 뜻은 누가 땀든 끌어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고후12:4)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는 낙원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낙원으로 간다고 주장하고, 불교에서는 극락으로 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치가 좋은 장소를 낙원과 같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뜻은 좋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낙원에 갔다 왔습니다.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제가 한 말은 안 믿어도 바울이 한 말은 믿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생전 보지 못한 세계가 나옵니다. 죽었을 때 가는 곳이 자기 집안이면 그의 영혼이 압니다. 자기가 살던 곳이니 까.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고불고하면, 고모가 왔네, 동생이 왔네, 오빠가 왔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영혼이라도 자기가 아는 사람이니까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나와서 자기가 살지 않던 미국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영혼은 길을 모릅니다. 하물며 지구를 떠나는 존재가, 첫째 하늘이나 둘째 하늘도 아니고, 그 먼 셋째 하늘에 가는데, 길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못 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살아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끌려가지 않으면 어디에 있을 겁니까? 자기 집안에 처박혀 있을 겁니까?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끌려간다는 뜻은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죄수를 잡아서 개 끌 듯 끌고 가는 것은 강제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안 가려는 시늉을 한다면, 가는 곳이 편안한 곳이 못되고, 원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 가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끌려갈 때 그 사람의 모습은 편안하겠습니까? 흉측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좋은 곳으로 간다면, 이 사람은 얼굴에 웃음을 띠 거다 이겁니다.

그럼 바울의 말대로 따진다면 낙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하늘, 삼층천에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영수가 미워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을 부인하게 되면 성경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간 곳이 셋째 하늘이라면, 첫째 하늘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둘째 하늘도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끌려가면서 이걸 첫째 하늘이고, 이걸 둘째 하늘이고, 이걸 셋째 하늘이구나, 하고 느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에 첫째 하늘은 알고 있지만, 둘째 하늘하고 셋째 하늘은 모릅니다. 이걸 죽어야 압니다.

그럼 삼층천, 즉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이미 2천 년 전에 사도 바울이 했는데, 이 시대에 겨우 달나라 간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다고 해서 그걸 자랑스럽게 느

낀 겁니다.

앞에서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기독교가 말하는 천당이 셋째 하늘에 있다는 답이 나온 겁니다. 셋째 하늘에 천국이 있다 이겁니다. 거기 가서 사람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것을 무수히 보고,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고 왔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말대로 낙원에 가려면 하늘을 셋 거쳐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째 하늘을 벗어나면 하늘이 또 있다는 이야깁니다. 첫째 하늘에는 지구, 태양, 금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그 밖에 별게 다 있듯이, 그와 유사한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바울처럼 이상 중에 셋째 하늘에 가면서 본 바에 의하면, 둘째 하늘에는 음부가 펼쳐집니다. 그 음부의 세계에 하늘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또다시 가는 곳을 셋째 하늘의 세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음부에 대해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도 한 층을 지나고 두 층을 지나고 세 층의 세계에 도착했다는 것을 느꼈으니까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걸 오늘날 주의 종은 주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는 겁니다. 그럼 주의 종이 지금 말한 대로,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음부이니,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이 첫째 하늘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둘째 하늘의 세력

을 뚫고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도 그것이 음부의 세계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북괴하고 우리는 거리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산가족들은 안부도 전할 수 없습니다. 휴전선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휴전선만 없다면 금방 교류가 됩니다. 여기서 평양보다 백 배, 천 배 먼 거리에서도 우리는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북과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차단시키는 세계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차단시키는 세계가 음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부라는 세계를 통과하여 인간과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과 교류하지 못하고 차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과 교류하려면, 첫째로 지상에 음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리라.”(마16:18-19)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베드로와는 음부가 지배하지 못하는 연결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부가 베드로도 지배한다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음부가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

사람이 죽은 다음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나 죽음을 대단히 무서워하는데, 자세히 들으면, 내가 얼마 후에 이렇게 죽는구나, 총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는구나, 내 육신은 내 자손들이 땅속에 묻을 테지만 나는 이렇게 떠나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낙원으로 가든, 음부로 가든 지상에서 느낄 때 들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이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종하고 대화도 하고 찬송도 부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 속에는 피가 있습니다. 또한 그 피 속에는 우리의 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곧 생명입니다.(레17:11) 육을 이루어 나가는 생명도 되고, 혼과 연결되는 생명도 됩니다. 피가 변하면 바울이 말한 속사람, 즉 혼은 형태가 급속도로 변합니다. 만약에 주의 영이 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혼은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주를 많이 닮습니다. 주의 피는 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영이 오면 다른 영을 닮습니다. 다른 영이란 물론 악령을 가리킵니다.

지상에 있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면 영의 세계에 가서, ‘너

는 내 조카, 저분은 내 할아버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습이 바뀌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신이 “너는 지상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어.” 하고 보여줄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때 자기가 지상에 있을 땐 저런 모습으로 살았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왕들이 심판을 합니다. 거기서 “저는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발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지구상에 있을 때 한 짓을 보라.” 하고 심판자가 말하면 비디오 화면처럼 다 나타납니다. 이젠 제가 이상 중에 본 광경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죽는 걸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다시 깨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 안에서도 세상을 떠난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영적으로 주의 종의 영향력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향력에 따라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지상에 있을 때, 본인은 알든 모르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모습으로, 악령을 받았으면 악령의 모습으로, 영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즉 재창조되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에서는 ‘거듭난다’고 합니다. 주님이 “천국은 거듭난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면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선생이라면서도 거듭난다는 걸 모르는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요3:

4-6)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육으로 우리를 만들었지만, 영의 세계의 생명체는 영이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그 영을 맡겨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맡겨 주시고, 그 영으로 새 생명을 만들어 내라 이겁니다. 그 거듭나는 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과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셋째 하늘에 대해 설명한 사람이 있었느냐? 바울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느낄 때 셋째 하늘에 간 건 사실이지만, 둘째 하늘은 이러저러하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둘째 하늘이 음부라는 것은 주의 종이 처음 밝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을 그 시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 제 얘기를 성경학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 삼자들한테는 해 봤자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여러분은 나름대로 믿을 겁니다. 바울도 제자들에게 “나를 아는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고전9:1)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도 당시에는 먹혀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 은혜 안에서 우리 양떼가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오늘날 여러분이 소망하는 건 영적인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이걸 순교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스테반,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죽어서 영이 떠날 때 천사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천사가 안내하면 셋째 하늘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천사가 안내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와서 안내한다면 둘째 하늘로 갑니다.

우리 양떼가 세마포를 입지 못하고 은혜만 받고 죽어서 음부로 갔다고 칩시다. 음부에서는 이 사람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지배하고, 얼마만큼 자기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들이 다스리는 분야만 관리를 하지, 그 나머지 분야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의 ‘룰’입니다.

그럼 우리 역사 안에서 10명이 70% 이루어져서 음부로 갔다면, 그 사람들은 음부에서 70% 이루어진 사람들만이 대기하는 장소에 있게 될 것이고, 같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면, 그는 바로 지성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죽었어도 가는 세계가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이상 중에 직접 겪은 일입니다.

또 주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라. 영이 떠나면 네가 너를 볼 수 있지 않느냐?” 보니까 과연 제가 둘입니다. 하나는 저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저라는 존재를 볼 때 참 신비했습니다. 인간이 죽는 순간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이 이상 중에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서 영이 떠났으면 제가 여기 서 있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안찰을 하면 은혜가 위에서 옵니다. 위에서 와

서 저를 거쳐서 나가니까 ‘아, 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나간다.’ 이걸 제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저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아, 이 가정은 이렇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가정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알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이 오르내리는 것은 압니다.

나는 눈만 뜨면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매장을 시켜도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이것만은 차단시킬 자가 없습니다. 이걸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못 막습니다. 내게 쇠고랑을 채워서 나를 감옥에 넣든 어디에 넣든, 이것만은 차단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중 때문에 죄에 매여 있다가도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찰을 할 때 즉시 상대방의 죄가 찢겨 나갑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눅3:9)고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인정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안찰을 많이 받겠다, 자주 받겠다고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1년에 서너 번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그걸 간직만 하면 됩니다. 주의 종이 안찰을 해서 상대방에게 손을 댈 때에는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도 축복 받을 분들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받으시면 받아들이는 게 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많아집니다. 받는 게 사람마다 가지각색입니다.

Part 02.

변혁기의 새 복음



9.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려면? · 10. ‘옛 뱀’의 정체는 무엇인가? · 11.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하여 · 12. 성경의 증거 · 13. 영적으로 본 우리의 현실 · 14. 왜 알곡성전인가? · 15. 재창조의 원리 · 16. 변혁기의 신앙

Chapter 09.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려면?



나는 근래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하신 말씀과 영광의 주님이 되신 후에 하신 말씀을 구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실 적에 주께서 하신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되신 연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가 그동안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처음으로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성서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깊은 내용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의 차원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간간이 부분적으로 소개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7:14) 세레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마3:17)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레 요한에게 들려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의 위치에 앉게 해 주십니다.(시110:4)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대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필요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강령들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필요했습니다. “모든 율법과 강령이 나보다 앞서 왔던 세레 요한 때로 끝난다.”(마11:13, 눅16:16)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 아브라함도 필요했고, 모세도 필요했고, 그 밖의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이후에 모든 법도가 바뀝니다. 이것을 ‘신앙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법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종노릇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제도는 하나님이 아론을 시켜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는 최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제사상의 조상은 아론입니다.

이 아론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로 형성된 집단을 지파라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도 영의 세계에서 12지파가 형성돼 나옵니다.(계7:5-8, 21:12) 육으로 있었던 모든 언약은 장차 영의 세계에 가서, 즉 하늘나라에 가서 그대로 펼쳐집니다. 하늘과 지상의 차이는 있지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될 것을 육적인 백성을 통해서 먼저 지상에서 펼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 앞으로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제사장의 역할을 약속받으셨지만, 주님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상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부친이 제사장이라면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그 십일조를 받아 사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지파만은 바치는 지파가 아니고 받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등급으로 보면 제일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십일조를 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십일조를 바친 겁니다.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보다는 직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최고의 높은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에 속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시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이 다른 제사장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아론의 반열에서 나와야 하는데, 유다 지파에서도 제사장이 나온다고 했으니 죽보가 맞습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이라는 명칭을 지닌 제사장이라는 겁니다.(시110:4)

그럼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하고 어떻게 다른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은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상 중에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윗아, 네 후손 중에서 내 아들이 태어난다. 즉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는 온 세상의 죄악을 담당할 구세주이다.”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가 육적으로는 자기 후손이지만, 그를 통하지 않으면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메시아가 내 후손 중에 태어난다고 하셨으니,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저는 이미 죽어서 음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귀한 분에게 제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시16:10 참고) 다윗은 메시아를 통하여 구속을 얻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분에게 내 생명이 건짐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스스로 깨달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겁니다. 메시아가 자기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면 자기를 버리지 않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윗이 당신을 ‘주’라고 부른 것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앞에서 직접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마22:45) 하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나라에 가게 되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메시아는 지상에 태어나 이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 제일 많이 기록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연스럽게 이사야의 예언을 많이 보신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요한 계시록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 따라서 주의 종이 해야 할 일들이 계시록

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나
를 두고 기록했느니라.” (요5:39) 그러나 그걸 믿어 주는 사람이 그 당
시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
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
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
심이라.” (마4:14)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본대로 사셨다
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그만두
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당신들이 듣기에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
문에 다 말할 수가 없다.” (히5:11)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멜
기세덱이 뭔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해석이 있어도 알기 어려운 판인데, 해
석조차 하지 않았으니 기독교는 멜기세덱에 관한 걸 알 수가 없습
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
어나면,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다들 존경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면
서부터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므로 누구나 그를 존경했습니다. 물
세례를 줘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오늘날에는, 신학 대학을 나와 박사가 된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
다, 아 그분 권위 있고 인격 높은 분이야, 이러면 ‘와아’ 하며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것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하면, 그거 사이버래, 뭐래, 이래가지고 안 옵니다. 아예 말조차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끌어 모으는 일은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요한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입니다.” 이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분이 아들이니까 따라라.”고 주장하지 않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마11:3)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 떨어진 겁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긴가민가하고 애기를 해 버리니,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우수수 떨어진 건 당연합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치기 시작한 겁니다. “광야에 뭘 보러 나갔느냐?” 이겁니다. “보라. 여인이 낳은 자 중 그보다 큰 자가 없다. 훌륭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마 11:11) 당신을 비판하니 거꾸로 주님이 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지만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이므로 지파별로 보면 급수가 처지는 겁니다. 제사장의 집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란 권한이 대단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는 다 십일조를 내도, 레위 지파는 십일조를 받아서 먹고산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존재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족보를 변경시키신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의 첫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제사장과,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은 크게 다릅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존재가 됩니다.

정치에는 계파가 있습니다. 줄 잘못 서면 낭패를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지파에도 계열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열에 속합니다. 이들은 제사장 직분이 유한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대제사장은 영원한 존재로 세웁니다.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된 고로, 그리스도에 속한 제사장들은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합니다.

아론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지성소는 지상의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들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늘의 지성소에 목 베임을 당한 영들이 있다면, 그들은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계6:11)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세마포를 입는다면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니까, 신부는 시아버지 집에 족보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니까 그 안에서 감추어진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계시록에 일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일곱 인을 떼는 중에 첫째 인을 떼 때와 다섯째 인을 떼 때를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인을 떼 때에는 오늘날 시대적인 사명을 맡은 인물이 나타나고, 다섯째 인을 떼 때에는 이미 순교하여 지성소에 가 있는 영들이 나옵니다. 목 베임 당한 영들이 주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 되시면 주님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록회원에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연세가 많아 돌아가시게 되면, 저와 이별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신다고 말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야말로 1,000여 만이나 되는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똑같은 성경, 똑같은 찬송가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을 밝힐 때에는 사람들이 신중히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 불교 얘기나 유교 얘기라면 기독교인들이 들을 필요가 없지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놓고 설교한다고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수십억의 믿는 사람들, 이미 음부에 가고, 지성소에 가 있는 영들에게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Chapter 10.

‘옛 뱀’의 정체는 무엇인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20:1-3)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상고하는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용이라는 하나의 영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용이라고 하면 그림에 나오듯이, 뿔이 달리고, 날카로운 수염이 있고, 또 비늘 같은 것이 굽게 덮여 있는 큰 뱀을 말합니다. 그래서 뱀이 변해서 용이 된다, 뱀이 용이 되려고 하다가 되지 못했을 때에 ‘이무기’라고 한다, 이렇게 세상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용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동물이고, 실존적인 생명체는 아닙

니다.

성경에 용은 옛 뱀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꾸불거리면서 징그럽게 기어 다니는 몸이 기다란 동물을 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옛 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꾸불거리면서 기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입기 전의 뱀이기 때문에 옛 뱀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뱀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옛 뱀이라고 했느냐? 이에 대해 얘기하려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눅8:31) 하고 간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저갱은 끝없는 굴속 같은 곳으로, 거기에 마귀를 가두어 둔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는 자물쇠와는 정반대입니다. 열쇠는 여는 겁니다. 잠그는 것은 쇠사슬에 의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큰 쇠사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열쇠와 쇠사슬을 가졌으면 이 천사는 묶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천사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계20:1) 하늘로서 내려왔으면 누가 보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에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꾀는 상대방의 이름을 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따먹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꾸중을 하십

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아담,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하는 선악과를 따 먹게 한 죄값으로, 너는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 평생을 기어 다니는 저주 아래 떨어질 것이다.” (창3:14)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주란 이미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못해져야 저주라는 말이 해당되는 것이지, 이미 있던 상태와 저주가 떨어진 다음이 똑같다면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 뱀은 하나님께로부터 흉한 모습으로 기어 다니도록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 하와를 꼬였던 뱀은 저주받기 전에 흉한 모습으로 기어 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뱀에게 가장 흉한 모습으로 기어 다니라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옛 뱀은 아담, 하와를 꼬인, 저주받기 전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걸 아주 중요한 얘 기입니다. 이걸 아셔야 요한 계시록은 물론이고 창세기도 해명하게 됩니다. 옛 뱀은 아담, 하와를 꼬이기 전의 명칭입니다. 즉 저주받기 전의 뱀을 말합니다. 뱀도 마귀도 사단도 결국은 용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용이 무엇인가를 알면 답이 모두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용을 뿔이 달리고 날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용의 모습은 하나님과 흡사합니다. 인간을 짓기 전부터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고, 용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채가 나고, 용은 검정색을 띵니다. 윤기는 나뉘 색깔이 검습니다. 그러나 형상은 유사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옛 뱀은 용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용이 만약에 인간의 형상과 같다면, 아담, 하와를 쫓 때 뱀의 형상은 아담, 하와와 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총회장님이 엄청난 얘기를 되게 쉽게 하신다.’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걸 제가 본 사람이니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이 “주여,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요14:8) 하고 말했을 때 주님은 “인자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요14:9)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는 주의 종을 가리켜서, “낮을 들고 구름 위에 앉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와 방불하다.”(계14:14)고 했습니다. 방불하다는 것은 닮은 걸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주의 귀한 형상을 닮게 해 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걸 뭐냐? 조건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뱀이 아담, 하와를 꼬였을 때에 지금 기어 다니는 이런 징그러운 형상이라면 아담, 하와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뱀은 아담, 하와하고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저주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성서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했다고 기록했습니다.(창3:1) 그런데 용을 잡으니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하와를 꼬인 뱀 속에 용이 들어가서 역사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형상이 어떻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동물들도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 기록이 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동물을 지었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빛에 대해 거부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니까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실 때 아담, 하와가 빛을 싫어하여 숨은 것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여건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고로, 자동적으로 어둠과 짝합니다. 그건 불멸의 원리입니다.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용이라고 했다면 용에게 다 연결됐다는 뜻인데, 용을 잡아서 일천 년 동안 가두어 둘 때에는 쇠사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꿈쩍 못하게 했다가 자유를 줄 적에는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사가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계13:4)는 말이 나오고, ‘세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온다.’(계16:13)는 말도 쓰여 있습니다. 또 ‘하늘의 군대들과 싸우려고 많은 영을 집합시키더라.’(계16:14)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왕초인 용이 실질적으로 잡히는 순간에는 악의 세력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의 천 년 동안이 바로 ‘천년세계’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천 년 동안만 가두어 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 년 동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의 우두머리인 용을 잡아서 가두어 뒀다가, 천 년이 차면 왜 놓아주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 풀어 주느냐 이겁니다. 풀어 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성경엔 풀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쇠사슬은 잡아넣으려고 가지고 왔고, 열쇠는 열기 위해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잡는 천사와 열어 주는 천사는 같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풀어 주면 용이 다시 나와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짐승이란 존재에게 권세를 줍니다.(계13:4) 이때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의로운 성도 14만 4천을 이기는 때가 옵니다.(계13:7) 그 이기는 때를 성경은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야 반드시 끝이 난다, 하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단12:7)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마귀를 무저갱에 처넣은 다음에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놓아주는 기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잡아넣었으면 끝나는 것이지, 왜 놓아주시는가? 풀어놓아서 완전히 소탕하기 위

해서입니다. 이처럼 어둠의 세력은 단번에 소탕되지 않고 단계를 밟게 됩니다. 왜? 그만큼 저항하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한 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Chapter 11.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어떤 진리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양떼들이 옳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잘못 만나면 평생의 한을 남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과 종들 사이에 맺는 언약에 의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역사적인 차원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현실을 바로 파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이 원하여 맺은 언약이지, 사람이 원하여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다.” 하고 자신의 존재를 밝힙니다. 아브라함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밝힌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통고하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겠다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은 할례를 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맺어진 언약을 잘 지킬 때는 그 언약의 대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은 일 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혈혈단신으로 있는 아브라함에게나 여호와가 한 언약이니라.” (사51:2)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 개인하고 맺은 언약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첫 언약을 알아야 새 언약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첫 언약이 언제까지 시행됐느냐가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서, 역조창생들이 각각 14만 4천 명의 왕들에게 심판을 받게 될 때를 흔히들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그 심판대에서 언약

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첫 언약에 속해 믿었느냐, 새 언약에 속해 믿었느냐가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첫 언약은 세레 요한 때까지 시행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됨으로써 그 언약은 끝나게 됩니다.(마11:13) 말라기서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말4:5)고 예언했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태어나는 주의 길 예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인 세레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조치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집안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바깥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율법이나 배워서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 세레 요한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엘리야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어려서부터 바깥에 나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야영을 즐기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광야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결국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주게 됩니다.

물세례를 받는 사람은 잠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만, 세례를 주는 사람은 하루 종일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물속에서 수천 명에게 세례를 주다 보면 웬만한 사람은 감기 몸살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요한은 끄떡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광야에 잘 적응하는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

불도 덮지 않고 잤습니다. 생식을 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피신하여 미디안의 제사장 집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대낮에 모세에게 나타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한 내용을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통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나 모세를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의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이거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너는 보따리를 싸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창12:1)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많은 역경에 부딪치게 됩니다. 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가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은 후손들의 삶을 그대로 겪는 데 불과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걸어진 발자취를 실제로 행하는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왕성하게 퍼지게 된다. 그들이 곧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한테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으로서의 택함을 받게 된다.”(창13:16-17) 하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는 여드레 만에 할례를 해라.”(창17:12) 하고 하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동안은 결코 순탄치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할례를 다시 지시하여 많은 장정들이 고통을 겪는 장면이 성경에도 나옵니다.(수5:3-5)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중요시했습니다. 그건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할례 받은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는 지구상에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을 만들자, 또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지구상의 어디에 만드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만들어야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하나님을 제일 적대시하는 바알 신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쓸어버리시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을 뽑아 버리고, 바알 신이 제사를 받고 영광을 받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왔고, 바알 신을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은 극비리에 진행하신 겁니다. 지상에서 우상이 제일 강한 곳을 쓸어버리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이 대한민국,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용두동입니다. 용두동은 용의 대가리가 되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 앞에 선농단이 있습니다. 선농단은 임금님이 오셔서 제사를 지내던 장소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앞이 지금도 사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중심부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시면 만날 보는 곳입니다. 거기를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막말로 발등상 시키고 있습니다. 밟고 다니니까 발등상 시키는 것입니다. 저 앞의 신이 죽을 지경일 겁니다.

가나안 땅은 제일 강한 바알 신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은 철퇴를 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적을 까부수기 위해서 소탕전을 개시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할아버지에서부터 첫머리가 아기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살려 두지 말고 다 죽여 버려라.”(신13:15) 이겁니다. 가나안 원주민만큼은 씨를 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주민의 싹쓸이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삿2:21)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 여파가 남아 있다는 것을 누차 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은 동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살아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첫 언약 안에서 법을 세우고, 대대손손이 그 규례를 지켜라 한 것이 모세 율법입니다. 그럼 모세 율법은 무슨 언약에 속합니까? 첫 언약에 속하는 율법입니다. 그럼 만일 첫 언약이 폐기된다면, 그 안에 속한 율법을 그대로 뒤야 합니까? 폐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첫 언약이 없어질 때에는 모세의 율법도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언약이 변경되면 율법도 변화 하니라. 율법이 변하면 제사도 변하느니라.”(히7:12) 왜냐하면, 제사는 율법에 의해서 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과 율법은 바로 세례 요한 때로 끝난다.”(눅16:16)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때로 끝나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끝나 버리면 끝난 걸로 백지화시키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은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입니다. “첫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니라.”(히8:7, 10:1) 그럼 실상이 올 때에는 그림자는 계속 있어야 합니까? 물러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지켜 왔고, 그 언약 속에서 지시한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지켜 왔던 겁니다. 이렇게 지켜 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승리의 피권세로 하늘에 올라가

신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행2:1-4)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루어진 모세의 율법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인 주님의 법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는 믿는 사람들의 모든 제사 제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어 은혜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입증하는 할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 언약의 이미지가 퇴색해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은 공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 종이 어떻게 두 임금을 섬깁니까? 언약이 어떻게 두 가지로 남발됩니까? 안 됩니다. 언약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중 약속이 되면 부도가 납니다. 집도 한 번 팔면 딴 사람에게 팔지 못합니다. 이중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되어 가는 현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빨리 정리해야겠다, 해서 정지 작업을 펼친 하나님의 종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는 야곱의 자손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은 압박 강가에서 비몽사몽간에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축복을 받아냅니다.(창32:28-29) 그 축복을 받고 한두 달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네가 축복의 귀중성을 알고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냈으니, 그런 뜻에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창35:10) 하고 하나님이 칭호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 자체가 승리를 표시합니다. 그들은 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나라 이름부터가 승리이기 때문에 패배는 있을 수 없다는 신념이 뇌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어느 민족하고 전쟁을 하든지 죽을 때까지 싸워, 이기고야 맙니다.

이렇게 이겼다는 뜻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긴자를 상징하는 인물이 된 겁니다. 영적 야곱이다, 하면 영적으로 이겼다 그 소리입니다. 야곱이 이겼다는 칭호를 받아 그 열두 아들에게 각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합니다. 즉 성령이 그 입을 빌어 아들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알려 줍니다.(창49:1-27) 그리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 예언이 응해집니다. 하나님이 응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간입니다.

이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백성은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섬깁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나라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는 영적으로 하늘에 속합니다. 영원히 없어지

지 않는 나라, 쇠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무궁토록 찬란한 하나의 국가가 형성된다 이겁니다.(사9:7, 단7:14) 요한 계시록에 보면 마치 야곱의 열두 아들로 구성된 열두 지파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배출시키듯이, 하늘나라도 역시 12지파를 형성해서 이룬다는 겁니다.(계7:3-9) 다시 말해서 야곱(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또 하나의 승리를 뜻하는 이긴자가 나타나 영적인 12지파를 형성하여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지파를 형성할 때에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12지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들은 할례가 아니고, 인을 받습니다. 즉 신약 시대의 인은 구약 시대의 할례와 같습니다. 옛날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적이 되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 인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해서 “인 맞은 자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14만 4천이 있더라.”(계14:1)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지파라는 상징적인 내용이 기록된 이유가 그겁니다.(계7:5-7)

거듭 말하지만, 첫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첫 언약에서 야곱이 12지파를 만들듯이, 새 언약을 이루는 좋은 영적인 12지파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계6:11, 15:16 참조)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백성들을 만들어 놓는 역할을 담당한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

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야 하나님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첫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언약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한 내용들이 새 언약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새 언약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첫 언약은 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상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알면 장차 하늘나라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조금은 알게 됩니다. 영과 육만 다르지, 방법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도 성소와 지성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목 베임을 받은 영들이 모여 있습니다.(계6:9)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번거로운 계획들을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계획이 필요 없는 겁니다. 싸울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계획, 즉 작전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이겨야 하니까. 모두 내 것이라면 작전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전쟁 계획서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오늘날까지 지상은 어둠의 세력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요1:5)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빛이 주관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빛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곳에 빛이 도전하는 겁니다. 왜? 에덴동산에서 빼앗긴 인간을 도로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은 바알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도전을 시킨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움직임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뺏긴 것을 뺏으려는 싸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님이 일을 다 하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 이겁니다.(시110:4)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주님이 전부 이어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를 관장하신 주님이 오늘날까지 2천 년의 긴 세월을 걸쳐 세계를 상대로 해서 믿는 사람을 직접 치리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지상에서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 전하는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물을 길다 말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요4:29)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아낙네들이 모여와서 얘기를 듣게 된 것이 메시아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판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사실 지금 제사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 사람

이 수궁하겠습니까? 제사 제도가 필요 없으면 자기 밥통이 날아가는 판인데, 그 사람들은 반가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 제도가 필요 없으면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전과 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제사장이 뭐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물러가야 합니다. 그런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듣겠지만, 자기 밥통하고 직결되는 사람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도 그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최초로 자기가 메시아임을 밝히고, “이제부터는 산당이나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요4:21)고 말씀한 겁니다. 이제부터라는 단서가 붙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라는 존재가 오시지 않았으면 그 제사는 폐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공이 왔기 때문에 폐지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은 부도가 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 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마24:35)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어기는 거지, 하나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잠깐 봅시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해 주겠다.’ 하는 언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언약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과하고 일을 해 가고 있습니

다.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따르는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직접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언약은 저한테 하셨지만, 그 혜택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다른 시대에 어떻게 했다 하는 건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성경에 모세 시대에 어떻게 했고, 바울 시대에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오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나 바울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시대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 언약에 의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가 워낙 정확하게 성서적으로 해 나오니까, 일반교회에서 선불리 꼬투리를 잡지 못합니다. 이긴자다, 감람나무다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단은 이단인데, 그렇다고 아무리 따져봐도 설교가 너무나 성서적이니까, 이단이라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얼마 안 있으며 오신다, 말세가 다했다, 몇 월 며칠에 오시니까 어떻게 하라 —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 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에 취미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셔도 말 안 합니다. 주께서 “야, 통고해!” 하시면 비로소 “주님이 내일 오신 답니다. 통고가 내려왔습니다.” 하고 말하겠지만, 그 외에는 일체 말 안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서 돈에 눈독을 들여 100원 한 장, 교회 재정에 손을 대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나머지 한 가지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진리는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 내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에 입각해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에 어긋나거나, 앞뒤가 맞지 않게 얘기하고 자기가 뭐라고 한다면, 이건 전부 글자 그대로 엉터리입니다. 진리라는 건 성경을 놓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다, 이건 소용없습니다. 사람에게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진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듯한 감언이설로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서가 밑받침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맡게 되면 제일 먼저 성경을 통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 역사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상 중에 성경의 장면들이 텔레비전 화면처럼 나타나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설명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습니까?

나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할까 생각하고, 여기저기 꾸며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에서 보여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새로운 지시가 오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지시가 왔으니 해야겠습니다, 해서 오늘날까지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Chapter 12.

성경의 증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14:16-17)

주님이 생존 시에 앞으로 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앞선 역사에서도 들었고, 또 저를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100%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보혜사의 근본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시대의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기독교 신자들은 누구나 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제외하고는 진리를 논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차 설명드린 대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에는 실제로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시고자 한 깊은 말씀들은 차후로 미루셨던 겁니다. 즉 다른 보혜사에게 미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다른 보혜사는 받는 자 밖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의 역사 자체가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후에 사도 요한을 이상 중에 불러 특별히 지시한 내용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한 계시록에는 깊고 오묘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요한 계시록을 알고자 했으나 알 수 없어 덮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보혜사의 도움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따르는 양떼들이 받았던 성령이 아닙니다. 주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없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수 있었기 때문에, 기라성 같은 선지 성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지 성인들도 죽게 되면 그 영들과 하나님의 교류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원만치 못했던 하나님과의 교류를, 살아 있을 때 하나님과 교류하듯이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보혜사를 받게 되면, 살아 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따라온 지도 어느덧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이 시대에 필요한 십자가의 군병들로 육성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 주님 앞에 예배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교역자들이 주님을 소개하는 내용은 다른 보혜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보혜사를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다른 보혜사가 뭐냐고 물으면 단순히 성령이라고만 대답합니다. 그게 오늘의 실정입니다. 저에게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는 판인데, 그들은 듣지도 못했으니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요14:17)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다른 보혜사에 대해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선지성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즉,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같이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

므로 모세가 하나님께 필요한 일들을 해 드리지 못하면,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컸어도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 종이 못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했으나, 모세가 죽을 무렵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민 20:12)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로 들으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모세에게는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해야 했던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괜히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계획은 바로 가나안 땅의 마귀를 처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와 교류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고 택하신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싫든 좋든,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있으라 하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우리는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오직 주의 것이다.”(롬14:8)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수백 년 후에 하시고자 하는 뜻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각 본을 짜신 겁니다.

이리하여 모세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한 내용을 네가 이루어야 한다.”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당대에 지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이라는 최고로 권위 있는 이방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주인을 뜻합니다. 주인은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이 지상에서 주인이 되면, 지상의 인간들은 다 그 신에게 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주인 노릇을 못하고 엉뚱한 ‘바알’이 지구상에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 신을 멸해 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즉 ‘바알’을 섬기는 민족을 없애 버리겠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에게 도전하는 백성을 키우신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지내라는 게 아니고, 가나안 민족을 쓸어버리는 역할을 너희 민족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할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모조리 없애 버리고, 신당을 다 헐어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400여 년간 길러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시대로 돌아와서 봅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마26:39) 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대가로 주시는 게 뭐냐? “내 우편에 앉아서 내 권한을 이어받아라.” 이겁니다.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그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도 아들로서의 상이 다르고, 종으로서의 상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시기 위해 아들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종들과 언약이 다릅니다. “네가 내 뜻을 이루게 되면, 나는 너에게 내가 앉아 있는 보좌의 권세를 주겠다.” 이겁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너한테 넘겨주겠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상왕이 되시고, 주님은 전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천 년 전에 이미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넘기셨습니다. 누구도 볼 수 없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일찍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받아 쥐고,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을 다 갖게 되니, 24장로와 네 생물이 모두 주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을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습니다.(계5:9-12 참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아들이 되리라.”(계21:6-7) 이권 성경에 있는 말 씀입니다. 이때 주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대우를 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이긴자는 처음부터 아들의 대우로 시작됩니다.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아들이라는 얘기입니까? 대우를 그렇게 해주겠다고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대우를 해 주셔야 하는가?

여러분, 선지자가 아무리 잘했다 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좌를 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보좌를 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건 독생자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대가로 하나님의 보좌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이 하신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이기는 자가 나오게 되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도 내 보좌에 앉게 해 주리라.”(계3:21)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그런 권세를 상대방에게 맡겨 주시면, 진짜 아들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볼 때에는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들의 권세를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까는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서 모든 권세를 물려받았지만, 이번에는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인자’가 아니고 ‘인자와 방불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계14:14)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지, 억지로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명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 받을 때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이것이 네가 할 일이다.” 하고 말입니다. 요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요나야,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저들의 죄악을 쳐서 경고해야겠다.”(욘1:2) 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앞뒤를 재 봐도 계산이 맞지 않으니까 다시스라는 다른 곳으로 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니느웨 성만은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다른 데로 가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아무 데서나 내 일을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내버려 둬야지,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시하면 지시하는 데로 가야지, 네가 건방지게 딴 데로 가느냐?” 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은 니느웨 성으로 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봅시다.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주여 뉘십니까?” 하고 바울이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할 일을 지시하마.” 주님이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을 지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방에 가서 전도를 하여라.”(행 22:21)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면서 할례가 필요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이단이

다 해서 핍박이 대단했습니다.(행21:20-21) 죽어라고 얻어맞고는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안 하면 장님이 됩니다. 그걸 주님이 신호로 보냈잖습니까? “매 맞는 게 두려워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장님이 된다.” 이겁니다.(고전9:16 참조) 곤장 맞아도 눈뜨고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라고 죽음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말이 어떠하든, 누구나 다 죽음은 무서운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자살하려고 물에 빠진 사람도 살려고 허우적대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감옥에 있는데, 깜빡 잠든 사이에 이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위안을 해 주시는 겁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듯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라.” 같은 민족에게 전도해도 힘든데, 로마로 가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말을 할 줄 알고 또 로마 국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을 것은 뻔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 스스로 합니까? 주님의 뜻이므로 바울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맡겨서 일을 시키실 때에는 상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섬길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상이 큰 겁니다.

오늘날은 감람나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알기 전에는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다른 보혜사가

움직이는 장소를 남들이 이단이다, 비진리다, 한다고 해서 매장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사실상 ‘인자와 방불한’ 종을 만나서 언약을 갖고 움직이는 시대에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에는 선지자들 밑에서 고생하고 받는 대우와는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주의 종이 실제로 세마포를 입혀 줄 수 있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세마포를 입을 순교자들을 주님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직접 배출해 내신 겁니다. 이걸 순교하지 않고도 세마포를 입혀 줄 수 있는 권한을 맡은 존재가 이긴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따져 보면, 주님이 하신 것보다 한 차원 위입니다. 그러나 이긴자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같이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순교를 당해야만 가능한 섭리 속에서 순교자들을 배출시켰는데, 이긴자가 나타나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않고도 순교자들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자격자들을 배출시키니까, 그 과정에서 아들이 한 일보다 아들과 방불한 자가 하는 일 자체는 더 큼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하는 것도 행하겠거니와, 나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요14:12) 그 사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작업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보혜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다른 보혜사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고, 저 역시 다른 보혜사 때문에 여기 서서 떠드는 것뿐이지, 제가 남보다 잘났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여

기는 은혜가 있고, 다른 데는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양자는 친아들이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는 아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아들과 방불한 겁니다. 이긴자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 분의 권능에 의해서 아들의 역할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일반교회하고는 그것이 다른 겁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이 걸 이해하지 못하니 자꾸 딴 소리를 합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합니까? 성경을 왜곡한다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이라면 증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이영수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으니 그게 아니라고 반증해 보라 이겁니다. 내가 한 얘기에 대해서 반박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사람도 못합니다.

내가 숨어서 지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집 9권에다가 ‘세기의 증언’, ‘계시록 강해’가 세상에 돌아다닙니다. 책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의 근거를 대고, ‘이래서 이단이다.’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산속에서 여러분 몇 명 불러다 놓고, 도포 쓰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살게 합니다. 오늘날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역대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면 저도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Chapter 13.

영적으로 본 우리의 현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은 “나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요14:6)고 말씀했습니다.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누구나 하늘나라에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고 주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부터가 ‘좁은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실 여기 오신 여러분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일반 교인들처럼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나 보는 걸로 만족을 느낀다면 얼마나 뻘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믿다가 죽어서 주의 품에 안겨 바로 천당 가는 줄로 알고 산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고심할 것 없이 편안하게 나날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고 싶어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안타까운 사정을 전달받게 됨으로써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고심도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한 발짝만 바깥에 나가셔도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 평안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만큼은 사실상 마음의 부담이 무거워, 때로는 벗어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택함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에서,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서 모세 율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첫 성전이었습니다.

학개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이 전(殿)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학2:9)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 번씩 강조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는 초라한 모습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처음에는 성전 재건에 열성을 보였으나, 차츰 열의가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성전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 성전을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놓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

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큰 관심을 가지시는가? 다시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 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학2:3) 이걸 무슨 말씀이나 하면, 거룩한 성전이 바벨론 군에 의해 파괴되기 전에 이 성전을 본 늙은이들이 있으면 후손들에게 증거하여, 그 이전의 성전처럼 깨끗하게 보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너희 눈앞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앞에 보잘 것없지 아니하냐?” (학2:3) 정말 너희들이 봐도 성전이 파괴되어 형편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당시에 제일 높은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이고, 두 번째가 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집을 보아도 초라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국민들과 합세하여 성전 재건에 대한 열성을 보여줘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너희는 총력을 기울여서 내 성전의 영광을 되찾도록 하라.’ 이겁니다.

제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읽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앞선 역사에서 거둬들인 식구라야 지극히 적습니다. 불쌍한 사람들뿐입니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오늘날 왜 우

리에게 이런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57억을 헤아립니다. 이 57억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선진국 백성들은 대다수가 기독교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들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는 큰 비극입니다. 이렇게 된 동기는 두말할 필요 없이 앞선 역사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실지라도 여러분은 아마 납득이 가실 겁니다.

감람나무의 역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속4:14)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역사가 버티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상에 십자가를 달아 놓은 교회는 많습니다. 그게 모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날 성경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때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약 4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태양을 비롯하여 동식물도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제사를 공식적으로 한 번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니 사흘만 기간을 달라고 해라.”(출3:18) 이렇게 된 겁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락하게끔 하기 위해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후회하고 또 쫓아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때에 최초의 성전이 바로 장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짓는 방법을 공식적으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출25:8-9) “너희는 이렇게 장막을 지어라.” 하고 말입니다. 당시의 장막은 짐승의 가죽으로 천막을 친 겁니다. 성소는 이렇게 만들고, 지성소도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가죽으로 만든 것이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방 나라에는 대리석으로 된 훌륭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웅장한 유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그렇게 훌륭하게 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천막에서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 그래야만 하나

님과 악령 사이에 무엇이 오고 가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애굽 땅에서 요셉을 시작으로 하여 길렀습니다. 그 후 4백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이 60만이었으니까, 수백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전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과의 싸움에서 보통 불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적당히 싸잡아 가지고 교인이나 불리는 그런 역사하고 여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우상을 쳐부수고 영광을 받고자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인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산에 올라오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지시를 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러 올라간 동안에 밀에 서는 판짚을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 평정시킨 다음,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광야 생활이니까 물자도 귀하고 자꾸 옮겨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천과 가족으로 장막을

지어라.” 하신 겁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아론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아라.”, “제사 지낼 때 옷은 이렇게 입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장막을 치고 제물을 갖다 놓고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판인데, 하나님은 천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천막에서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 다윗이 예비한 물자를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창세 이후 최초로 성전에서 제사를 받게 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은 대단히 귀중합니다. 즉 하나님이 제사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모습을 상세하게 지시하셨습니다.(대상28:11-19)

그 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고, 페르시아 시대에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 집을 다시 지어 나에게 영광을 돌려, 내 체면을 지키도록 해라.”(학1:8)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를 봐야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교회는

건물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한국도 지금은 큰 교회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통해 하나님이나 주님이 제사를 받으신다면, 알곡성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습니다. 이 기독교는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인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 체계가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기독교의 역사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기성교회에서 열심히 믿던 사람 중에 박 아무개가 감람나무의 사명을 띠고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를 모신 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슌4:14) 그는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긴자였습니다. 이긴자가 아니면 문제는 간단한데,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긴자가 등장하여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의 종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불과 같은 한 증거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불과 이슬과 생수의 세 증거로 임하는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하늘의 제사 제도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리하여 여태까지 전 세계에 걸쳐 십자가 아래서 예배드리는 그 영광을 받던 주님이 오로지 이긴자 감람나무의 줄기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계2:26-27, 3:21 참조)

이때부터 건물이 좋은 나쁜든, 그 줄기를 통해서 세워져야 성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해야 주님과 연결이 되고,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십자가 밑에서 예배를 보고 은혜를 받은 일반교회 신도들에게, 하나님과 주님이 아니고, 다른 신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역사에서,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그 주인공에게 와서 안찰을 받으면 흑이 나오고 명이 들곤 했던 것입니다. 신이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부인할지 몰라도, 과거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부인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감람나무라는 체계 속에서 이루어진 보혈의 제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과 주님이 교류하는 장소에서 빛이 사라지게 되면, 사실상 주님은 지상하고 교류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계속 퍼져 나갑니다. 그러나 어둠의 손에 들어가면 교회가 백만 개, 천만 개가 세워져도 어둠이 지배하게 됩니다. 밖으로 표가 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바뀌고 믿는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주관자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라가는 성전을 새로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서 시시콜콜히,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씀주시는 겁니

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주관자가 다릅니다. 감람나무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는 바람에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약입니다.(계2:26-27, 3:21, 속4:14)

오늘날 우리 역사가, 남이 볼 때에는 우스꽝스럽지만, 주님의 지시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이 세워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일반교회가 많이 있어도 이곳이 그 교회들하고 다른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섭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앞선 역사가 끝나기 전에,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라.”(속14:7) 하는 말씀과 같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 안이 급하니 서둘러서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제가 나섰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한국의 기독교인 천여 만 명에 비하면 대단히 보잘것없는 것이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비하면 더욱더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런데도 이곳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대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둠의 세력은 총공세를 펴게 마련입니다. 그 작업을 꺾어 버리면 하늘과의 교류가 끊기니까 마귀가 훼방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져 갈 때, 남의 눈에는 영성하고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용적으로 보면 그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제 5별관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남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알곡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다는 걸. 만일 십자가를 세워 놓은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런 성전 하나가 산속에 세워진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워진 성전이기에 때문에 별것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나 다른 나라의 큰 신전들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면, 광야에서 포장마차 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까짓 몇 평 안 되는 성막은 조금도 귀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가 답답해서 그 성막을 몇 평으로, 어떻게 지으라고 지시하셨겠습니까? 그 큰 신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그만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리한 조건에 계신가를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저 같은 것이 나타나 안타깝게 여러분 앞에 설명해 가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지만, 남들에게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인자의 임하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마24:37)고 했습니다. 그 방주가 만들어질 때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는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그들 나름대로 정책을 세워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처단하실 때, 수십억의 악령을 잡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두머리를 꺾으면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꺾어 버리면 그 밑에 수십만이 있든, 수백만이 있든 간에 자동적으로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사로잡아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대표가 감람나무이므로 감람나무만 잡아 버리면 백억이 하나님을 믿어도 마귀한테 항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내막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감람나무는 한 지역의 주를 모신 자가 아닙니다. 두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두 사람입니다.(속4:14, 계11:4) 감람나무는 온 세상의 신도를 대표합니다. 이 존재를 어둠이 사로잡아 버리면, 온 세상의 신도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사로잡은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기독교 안에서, 즉 일곱 교회 안에서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계2,3장) 그러나 2천 년간 이긴자가 나타나지 않고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드디어 이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계2:26) 그가 그 권세를 마귀에게 내줬다면, 사실상 주님의 편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루아침에 마귀가 사로잡

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자기의 모든 권세를 자기 부하에게 맡겨 줍니다. 짐승이 용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어받습니다.(계13:4) 하나님 측에서 이 짐승 하나를 사로잡으면, 마귀에게 속한 모든 어둠의 세력은 하루 아침에 하나님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온다는 등, 무저갱에다 처넣는다는 등, 별소리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계20:1-3) 사로잡느냐 사로잡히느냐, 뺏느냐 뺏기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기독교를 사로잡았다고 할 때, 그 안에서 선하다 악하다, 잘했다 못했다 하고 논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다 그쪽 세력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숲덩이끼리 ‘너는 더 검다’, ‘나는 덜 검다’ 그래 봤자, 숲은 숲이지 별 수 있습니까?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 하와가 어둠의 세력에게 사로잡히니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빼앗으려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내 이론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하고 따지는 것은 율법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여긴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긴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긴자의 권한으로 해 나갑니다.

일반교회에서 장로, 권사도 세상을 떠나면 흥측하게 모습이 변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온 연고로 죽으면 생수를 발라서 깨끗하게 펴 갑니다.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으로 되는 겁니까? 섭리로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쪽 장로는 잘못했기 때문에 썩어 가고, 이쪽 사람은 선을 많이 행하여서 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서서 외치는 이영수라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말하느냐? 아닙니다. 저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시대가 이런 거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일을 해라.” 하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일하는 거지, 전들 무슨 뽀족한 수가 있습니까? 들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는 것뿐입니다. 믿고 안 믿는 건 따르는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 처지를 봅시다. 알곡성전의 1별관을 지을 때만 해도 처음에 이 모습으로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별관을 지으라 해서 보여주신 대로, 그저 3층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에 가진 것이 없어서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는데 다시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종각을 이쪽으로 하고 4층에 제단을 들여보라.” 아니, 3층도 힘든데, 그걸 다시 4층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껏 돈을 들여 그려 놓은 설계는 다 날아가게 되었고,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상황으로는 3층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도와주셔서 4층까지 다 되었습니다.

이 서울 성전을 지을 때에도 주택 공사에서 이곳에는 교회가 들어앉을 수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관청에서 도장을 찍어 준 후, 오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계장, 과장이 나와서 날 붙들고, “우리가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이런 실수가 없었는데…” 하고 자기네들의 모가지가 달아나게 생겼으니 물러 달라고 통사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기 들어앉았습니다. 우린 몰랐지만, 당시에 이곳이 주택지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장소에 교회가 들어앉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수가 우연이 아니다 이 겁니다. 전부가 눈을 가려서 통과되도록 하늘에서 하시는 겁니다. 종각과 십자가가 설계도에 있었는데도 위에서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그들이 못 본 겁니다.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 양떼들이, 솔직히 말해 수가 많습니까, 그렇다고 잘 사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제가 심방을 다녀 보면 제 집 갖고 사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져서 이걸 해낼 때,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도 어렵고 괴롭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 나가는 겁니다.

Chapter 14.

왜 알곡성전인가?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 성전을 지어 놓고 그 성전을 알곡이라는 이름을 붙인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는 글자 그대로 알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둔다 하여 알곡이라는 말이 붙여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씨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농사짓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씨입니다. 어떤 농작물도 씨를 받아 두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농작물만 씨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씨’라 하여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요7:42) 또 주님과 연결된 천국의 아들들을 ‘좋은 씨다’(마13:38) 이렇게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복음의 말씀도 역

시 씨로 비유하셨습니다. 씨가 기름진 옥토에 떨어지면 좋은 결실을 맺고, 자갈밭에 떨어지면 결실을 제대로 못하고, 또한 그 씨가 벌레들이 먹거나 새가 물어 가면 결실이 안 되고, 엉성퀴와 같이 자라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마13:3-8) 이 경우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곡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알곡은 씨를 뿌린 다음에 거둡니다. 즉 거두는 일은 끝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도 끝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낮으로 거둔다.”(계14:16)는 낮은 추수 때 필요한 연장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구름 위에 인자와 방불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계14:14) 인자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과 비슷하다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주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구름 위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구름 위란 여호와가 계신 곳도 아니고, 인간이 사는 지상도 아니고, 하늘과 인간을 연결한다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름 위에 앉은 자가 낮을 들었는데, 이 낮은 알곡을 거두는 데 필요합니다. 성전 안에 곡식이 익는다고 했습니다.(계14:15) 성전 안에 곡식이 익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낮으로 곡식을 거둡니다. 일반 농부들은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걷지만, 뜰구름 위에 앉은 이는 성전 안에서 익은 곡식을 걷

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성전을 ‘알곡성전’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을 말하는 겁니다. 누차 말하지만, 한 생명이라도 좋으니 거둬들일 수 있는 알곡을 만들어 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추수를 뜻하는 겁니다. 알곡을 거두려면 미리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선 역사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고, 열매 맺는 백성들을 길러 거둬들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나중 역사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씨와 열매를 다시 한 번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뿌리는 역사가 없었다면, 거두는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뿌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거두는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 시대에, 씨를 뿌리는 역사는 몰락해 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으킬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알곡으로 만들어 거둬들이는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씨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체계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운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외면하면 그만인 그런 간단한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됐고, 그것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의 두 증거자에게 권세를 줄 터인즉, 그는 이 땅에서 내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계11:3-4)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 감람나무를 논하지 않던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 두 감람

나무의 등장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주의 뜻이 이 땅에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은 9만 명의 새싹을 움트게 했던 겁니다.

그 상처받은 싹들을 상대로 해서 한 생명이라도 좋으니 열매를 맺게 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두는 시대에 세운 성전을 ‘알곡 성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은 알곡을 거둬들여라. 바로 이 성전에서 알곡이 되어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알곡성전’이 된 겁니다. 너무나도 신비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은 어지러울지라도 이긴자는 변치 않습니다. 세상은 다 뒤집어질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노아의 식구가 수가 많아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불과 8명이 탈 방주가 훌륭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배가 완성되니 여호와께서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알곡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곡이 필요한 거지, 쪽정이는 원치 않습니다. 바로 이 성전은 알곡을 만들어 내는 수련장입니다. 알곡이 맺어지면 하늘에서 받아 주십니다. 일단 결실이 되면 그 알곡은 이긴자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알곡이 만들어지면 이긴자가 갖고 있는 낫으로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들이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이긴자가 필요합니다.

알곡이 다 만들어지면 그 알곡은 이긴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주께 속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알곡성전에서 알곡이 되면, 여러분

의 껍데기는 이긴자와 함께 있을지라도 알맹이는 이미 주님과 연결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경우에 언제 여러분이 세상 장막을 떠나도 주님의 영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알곡을 만들어 내는 전당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알곡성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하지만, 씨는 이미 뿌려져 있습니다. 결실을 맺는 건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주의 종이 합심하여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안 되고, 주의 종 혼자서도 안 됩니다. 주의 종과 여러분 사이에 호흡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알곡이 이루어집니다.

농부는 결실을 맺어 거둬들이기까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은 뿌려졌으니 열매를 맺게 하여 내게 갓다 달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간증했지만, 알밤이 되어 떨어지는 것과, 포도송이가 익어서 따는 것을 여호와께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완전히 익어야 되느니라. 익지 않으면 네 손으로 거둬들일 수 없다.”

거둬들이는 농부와 익어야 하는 알곡이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따르는 양떼들은 양떼들대로, 이긴자는 이긴자대로 걷도는 날에는 서로 죽습니다. 이긴자를 거치지 않고 알곡이 될 수 있다면 알곡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말고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 수만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열매가 맺어진다면 나 같은 농부가 필요 없습니다.

농부의 손에서 곡식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를 거치지 않

고는 거둠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든, 누가 주든, 은혜 받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기성교회에서 방언을 받는다, 병을 고친다, 앞일을 내다본다, 이런 신령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알곡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맞아야 합니다.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역사를 말합니다. 그곳에 하늘에서 재료가 내려옵니다.

고구마엔 고구마에 필요한 거름이 있어야 하고, 대추나무엔 대추나무에 필요한 거름이 있어야 합니다. 고구마를 기르는 곳에 인삼을 재배해서는 안 됩니다. 인삼이 자라는 밭이 따로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군병을 배출하는 하늘의 씨앗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 씨앗이나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군병을 배출시키는 작업은 40여 년 전에 앞선 종이 나타나서 씨를 뿌려 왔습니다. 그게 감람나무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9만 명입니다. 그 씨앗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 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한 생명이라도 온전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지으라고 지시하신 것이 이 성전입니다. 모두 상처투성이의 씨앗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는 썩고 곰팡이 난 것들이 들어온다. 그러나 그것을 다듬어서 세워라.” 이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역사에서 마구 부어 주던 그때와는 다릅니다. 나한테 온 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썩고 곰팡이가

끼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악령의 세력에 의해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 씨앗을 상대로 하여 온전한 생명체로 만들어 달라고 하늘에서 재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썩어 가는 씨앗들을 가지고 온전한 결실을 맺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덮어놓고 이러니저러니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즉흥적으로 알곡성전이라고 이름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은 겁니다. 이런 후미진 곳에 성전을 지을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와의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알곡이 되는 순간까지 주의 종이 필요한 것이고, 주의 종은 여러분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겐 인간 이영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긴자 감람나무가 필요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뿌리신 씨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씨앗이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밭이 자갈밭인지 영경귀가 자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Chapter 15.

재창조의 원리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여 죄 사함 받고 축복 받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목표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상 간구하고 요구하는 것을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의 존재를 서서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을 중요시 하며,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윤곽적으로나마 깨닫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은 자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아브라함

에게 주시고, 가장 소중한 자식을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가 과연 그 자식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열왕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열왕의 아버지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자식을 바치는 것을 보니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여러 가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계2:10)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제자들은,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바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갚아 주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마19:28) 이것은 파격적인 언약입니다. 그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귀중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수개월에 걸쳐서, 아니 수년에 걸쳐서 얘기를 해도, 오늘날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보수주의 신학이 뿔히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는 엄청난 내용들이 심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가 움직일 때에는 그 움직임에 따라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의존하는 신앙을 지킨다면, 다른 보혜사는 있으나마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앞선 역사를 이어받으면서 움직이는 우리의 역사가 새로운 복음의 체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리 속에 새로운 복음을 심어 나가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우리 역사를 진행하기가 이렇게도 힘들고, 아무나 따를 수 없는 겁니다. 또 앞선 역사에 동참했던 성도들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 나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우선 일반 신앙인들 앞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거부반응을 일으켜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동기를 재인식해야 합니다. 근본을 모르면 오늘날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근본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게 됩니다. 그 이유는 태아가 부모의 염색체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닮는다는 것은 혈통이 같다는 겁니다. 형제가 왜 닮습니까? 같은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람은 한국사람끼리 닮고, 미국사람은 미국사람끼리 닮았습니다. 동양인은 동양인, 서양인은 서양인, 아프리카 흑인은 흑인으로서 혈통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형상이 같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혈통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모습이 같다는 얘기는, 모든 조직 체계가 다르다는 얘깁니까, 같다는 얘깁니까? 우선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으심을 받았단니까 하나님만 제일이고,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장난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인간이 하나님과 형상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수십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얘기를 여러분이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깁니다.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지으신 게 아니고 처음에 아담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대두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아담이라면,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누굴 닮았다는 얘깁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 아담을 본 사람은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요14:9)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몇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간 산에서 홀연히 변화하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마17:2)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양쪽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변한 모습을 보고서 비로소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100% 믿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니 주께서 “네가 눈으로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14:9)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짓기는 하나님이 지어 주셨는데 아담에게 천하 만물을 다스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지만,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만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후계자입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만들어 아들에게 “네가 경영해라.”라고 말했다면 아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직분을 누구에게 주고, “이건 네가 맡아서 잘해 달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한계 안에서 권한을 갖고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권세나 분야를 맡겨 줄 때에는 맡은 자에게 일정한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아담이 실제로 어떤 여건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담이 혼자 지

내는 것이 하나님에게 쓸쓸하게 보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의 상호 관계를 살펴봅시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흙에서 취했으므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서는 하와라는 존재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거꾸로 환원하면 하와는 아담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원상 복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 고찰해 봐야 합니다. 영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상으로 복귀시키는 본향입니다. 지금 지상에는 남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여자가 원상 복귀하려면 남자에게로 돌아가고, 남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께서 지으신 인간을 제자리로 돌려보내겠다는 겁니다.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형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쌍벽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러나 지금 원리적으로 따져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부

터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피권세로 우리의 형상이 주의 형상을 닮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복귀가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환원됩니다. 이때 하와라는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담으로 환원되니까 하와라는 존재는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지으셨습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께 어떤 필요와 의도가 있으셨지만, 하와를 지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필요를 느껴서 지으신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와는 아담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니다.

그 후로 인간들은 지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아담(남자)은 아담대로, 하와(여자)는 하와대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상복귀가 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이루어지면 바로 아담은 하와라는 존재를 자기 갈비뼈로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존재와 하와라는 존재가 따로 필요 없을 경우에는 하와를 갈비뼈로 환원해야 합니다. 본래의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놔야 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남녀의 구별이 자연적으로 해소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서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와가 필요한 거지, 그 사명이 끝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는 비상식량과 무기와 군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전쟁할 때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무기를 다 반납하고 군복을 벗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는 것처럼, 주께서는 당신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상의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인간의 조상은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멜기세덱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자들을 가리킵니다. 범죄하기 전의 옛 아담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범죄하기 전의 아담에게는 생명과일을 먹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범죄하여 자격이 없어지자 하나님은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은 범죄하기 전의 아담과 같은 존재에게만 허용되는 일입니다. 그는 누구를 닮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이것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했습니다.(계2:7) 그에게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그는 옛 아담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긴자는 영적인 차원에서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 원리적으로 강조

하려는 겁니다. 이젠 육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과일을 줘 먹게 하시겠다는 것은 엄청난 애깁니다.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범죄하기 전의 아담과 같아지면, 영적 차원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이 “너를 만나는 자가 곧 나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아담을 통해 하와를 만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같은 인물이 있을 때, 그를 통해 어린 양의 아내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 내듯이,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는 아담과 같은 존재를 통해서 주의 신부를 만들어 낸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어라, 만들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만들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곧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옛날 아담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하와를 만들어 내듯이, 옛날의 아담과 같은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생명체를 배출시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옛날 아담,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살았듯이, 죄인들이 변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면, 낙원에서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체가 만

들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생명체를 덮어놓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 내듯이, 생명과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자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 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만든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형상을 닮지 않은 존재를 통해서 닮은 존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주의 귀한 형상을 입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셔야 합니다. 그 다른 보혜사를 초대교회의 오순절 날 120문도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존재들이 직접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형상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러나 순교를 당하지 않고도 그 형상과 같은 하늘의 존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긴자를 통하는 겁니다. 이긴자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주님이 직접하시게 되어 있지 않고, 이긴자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계2:26-27, 3:21 참조) 이긴자가 나오면 순교를 당하게 해 가지고 번잡스럽게 뽑아 올리는 게 아니고, 이긴자가 만들어서 천국 창고에 들여놓게 됩니다.(계 14:14-16)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주님은 일이 한결 쉬워집니다. 원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너를 만나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저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의 이러한

근황을 들으시고, 은혜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만 가르치지, 그 이후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구분지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은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대마다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처음 밝혀지는 얘기이므로 쉽게 먹히지 않습니다. 저마다 대뜸 ‘웁소’ 하고 받아들일 얘기가 아닙니다.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긴자가 안고 움직이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안찰을 받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내듯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보혈이 여러분을 영적인 생명체로 다시 만들어 내는 겁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안찰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생명체가 오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의 혜택을 아무한테나 가서 받을 수 있다면, 이긴자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깊은 원리입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기대를 걸고 계신 동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른 데션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만들라.”는 겁니

다. 그 대상이 여러분들입니다. 만들고 만들어지는 것 — 이것은 주의 종과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주의 종과 여러분이 호흡이 맞아야 하는 원인이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입니다.

Chapter 16.

변혁기의 신앙



성경에는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도 ‘때가 이르니’, ‘때가 되었나니’ 하고 때를 지칭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와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즉 한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지적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할 일을 정하여 예언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 하에 움직이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종에게 미리 통고하신 후에 실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시작할 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최초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때에는 지극히 적은 식구가 저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호와와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다.”(슌14:7) 하는 스가랴서의 구절을 제일 먼저 인용하여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1집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로 알려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루어 오신 역사를 먼저 소상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배경을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성서에 가장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을 든다면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독특한 사명을 주어 택하실 때만 해도, 대단히 막막한 상황 속에서 교류하고자 하신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실감을 하지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상고해 보면 기독교 역사가 대단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다 하면 ‘할례’라는 말을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존재를 알려 주십니다. ‘나를 앞으로 이렇게 불러라.’ 하고 통고하신 다음, 교류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하십니다. 그리하여 이만하면 아브라함을 부릴 수 있다는 심증이 굳어지면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시게 됩니다. 어떤 종이 됐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는 이렇게 해 다오' 하는 말씀이 내려오기에 앞서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시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창17:1) 그 언약의 증거가 유명한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나는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을 태어나게 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창12:2)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하여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통하여 태어나는 후손은 표적을 남겨야 한다. 그 표적을 받는 사람은 내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맺어야겠다. 그 언약의 표적은 양피를 베는 것이다. 그러니 너부터 양피를 베어라.”(창17:9-11 참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적이 양피를 베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여 할례라는 표적을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열방 중에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택하여 많은 백성을 만들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에 들어가서 4대 후에 하나님의 민족이 형성되면 가나안을 징벌하려는 계획을 실천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창15:13-15)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하신 후에 열방 중에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 상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을 첫 언약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을 알아야 예수님 시대의 신앙 혁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언약에 속한 분이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첫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히10:1)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치 못한 것은 폐하리라고 했습니다.(고전13:10)

지상에 육을 입고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처지에 계셨던 주께서 (히2:9) 하신 말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주님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연한 순과 같이 불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으며, 목자에게 끌려가는 털 깎는 양과 같이 온순하다고 했습니다.(사53:2) 또 남들은 예수가 짓값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그분이 온 세상의 죄악을 짊어졌다고 했습니다.(사53:7)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다른 보혜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보다 더 유익한 것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가 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도, 사실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전하는 얘기가 너희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요16:7 참조)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2천 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훌륭한 말씀도 남기셨지만, 분명히 주님도 시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가 오면 더욱 깊은 말씀을 하신다.” (요16:12-13)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일도 할 수 있느니라.”

(요14:12)

말씀에 부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내가 올라가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기 위해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죽기 전에 날 볼 자가 있다.”(마10:23) 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면 곧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다시 내려오실 줄로 아신 겁니다. 그런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여호와와의 비밀 중의 비밀인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열어 보시고(계5:8) 이 땅에 계실 때 상상도 못했던 여호와와의 깊은 사정을 알게 되신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장장 2천 년이나 전해 내려온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지지한 것이 아니고, 수억의 인구가, 세계의 기라성 같은 엄청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뇌리 속에서 쉽게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의 설명을 들어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실시해 온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할례를 폐지시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당시에 그게 씨가 먹히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루아침에 웬 청년이 불쑥 나타나 2천 년간 시행해 온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우기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평생토록 외친 사도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운명하기 전에 한 말

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갈5:11) 바울의 사명은 할례를 폐지시키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긴자의 사명은 뭐냐?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현재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슌14:7) 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 시대는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이 시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감람나무의 역사를 시작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겁니다.

이것은 성경 구절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인용하여 자기가 누구다 하고 갖다 붙이는 사이비 종교와는 다릅니다. 성서를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나온 아홉 권의 설교집이 모두 성경 얘기가 아닙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 알곡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흰 돌의 내용이 간간히 섞여 나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님의 사정과 전혀 다른, 현재의 주님의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흰 돌의 내용들입니다. 흰 돌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으면 또 설명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성경에 의해 체계가 먼저 서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자의 말이 성경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제대로 알아야만 그 말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주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이다.”(계2:7) 하고 당부한 겁니다. 은혜를 부어 주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 알곡성전에서 하루 종일 예배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릇이 먼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릇이 만들어지면 담기만 하면 승부는 끝납니다. 그릇이 없으면 담지 못합니다. 그릇만 되어 있으면 부어 주는 건 잠시면 됩니다. 그릇이 뭐냐? 그릇은 체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체계가 섰다, 안 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양의 은혜가 나에게서 나갑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그 은혜를 받아 말씀에 서고, 주의 종의 입김과 손길에 의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잘 믿고 못 믿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주의 종의 말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잘 믿는 거고, 따르지 않으면 못 믿는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옛날 하나님의 아들을 옆에 두고 두 강도 중 하나는 알아봤습니다. 두 강도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한 사람은 “댁은 죄 없으신 분이니까 낙원에 있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다른 놈은 옆에서 조롱했습니다.(눅23:39-42) 이렇게 같은 존재를 놓고도 백지한 장 사이에서 생사가 오고 갑니다. 이때의 결론은 뭐냐? ‘네가 나를 믿어 주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을 하실 때, 낙원으로 가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쪽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다른 보혜사가 임하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요16:7-8)는 언약을 여러분들이 글로만 봐서 그렇지, 그것은 막강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시야에 어떻게 비쳐지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길이 갈립니다. 세상의 권한 중에서 그 이상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평생 사는 것에 불과한 인생을 사형시키고 사면해 주고 하는 판사의 권한도 대단한 것인데, 하물며 영원히 죽고 사는 것을 정한다면 이게 보통 권한입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권한이나? 바로 다른 보혜사에게서 나오는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 과정은 애들 장난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습게 여기고 받으라는 할례를 받지 않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들이야 주의 종이 하는 일을 우습게 여길지라도, 내용을 아는 여러분에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감람나무의 그늘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든든한 영적인 배경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법이 있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법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이긴자나 감람나무가 되든, 그가 진짜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닌데’, ‘긴데’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제가 등장했을 때, 남들이 인정해 줬습니까? 앞선 역사에서 수만 명이 알지도 못하고 욕을 바가지로 퍼부었지만, 가짜가 아니라 진짜니까 일이 되

어 가는 겁니다.

Part 03.

창조의 알파와 오메가



17.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하신다. · 18. 이긴자 감람나무의 시대적 배경
· 19.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알라 · 20. 주님께 필요한 성도가 되자 · 21.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종 · 22. 창조와 진화

Chapter 17.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하신다



오늘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신앙의 바탕으로 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내용을 터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소화하려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혼이 외부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영과 합치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인간과 신 사이에 새로운 생명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고 신은 어디까지나 신인데, 사람이 신과 함께 하고 신이 사람과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신과 교류가 되고, 신이 사람과 교류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

람들이 하나님과 주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믿으면 되는 거고, 신은 신대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은 신대로 있고, 인간은 인간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신이 인간에게 오고 인간이 신에게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즉 신과 인간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단 육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라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는 존재가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입니다. 그럼 신의 조건은 무엇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이 있으면 신도 갖고 있는 조건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신의 조건을 헤아리기가 어렵고, 또 헤아릴 필요도 느끼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왜? 인간은 신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을 믿음으로 끝난다면 간단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

다.”(마8:20) 신의 존재지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섭리를 인간들의 마음속에 심고자 하는데,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음을 한탄하신 겁니다. 주님은 인간과 무던히도 함께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즉 신은 인간에게 접근하고자 애쓰셨으나, 인간은 신을 회피하여 신과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롬8:9)

신은 왜 인간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시는가? 인간이 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창1:26, 요17:5)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요8:58)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서 “네 나이가 50도 못된 주제에 몇 천 년 전의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냐?”(요8:57) 하고 항의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실 때 동참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17:5) 하고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도 당신이 전생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아십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지

만 원천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럼 왜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는가?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기독교의 행동 지침입니다.

제3자들은 주님의 그 기도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건 주님이 혼자 알고 하신 기도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의 주님과, 이 땅에서 한 살에서부터 서른세 살까지 지내실 때의 주님과,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지금의 주님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못 보신 분입니까? 보신 분입니다. 지으실 때 계셨으니까.

창세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1:26)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대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고(요3:13) 당신의 고향이 하늘임을 밝히셨으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존재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이 인간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오늘날도 신이 인간에게 애써 접근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말씀을 전하실 때의 사정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시는 주님은 다르다는 것을 나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한계는 하나님이 정

하신 겁니다. ‘내 아들일지라도 너는 지상에 내려가서 이런 한계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나한테 다시 오너라.’ 하는 각본이 짜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각본 안에서 33년 동안 지상에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주님밖에 알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그 후에 이상 중에 만나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각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여놓았기에, 즉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됐다, 하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계5:9-10)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니까 그 책의 내용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럼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하고, 하늘에 계실 때의 주님의 말씀은 내용이 같겠습니까? 다르다 이겁니다. 만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초림 때의 주님의 설교와는 내용이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는 지금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주님만 아는 겁니다. 그 이상의 주님이 없다면 그것으로 괜찮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동안에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 왔다면, 기독교 자체가 온전합니까? 온전치 못한 기독교를 믿어 온 겁니다. 바로 이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수천 명에 불과하지만, 이 말

씀은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원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옛날 예수님이 열두 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 세계 인류에게 해당된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와 전혀 다른 분입니다. 모습도 다르고, 말씀의 내용도 다르고, 위엄도, 권한도 다릅니다.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 때에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임금이 되어야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하셔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한계 안에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얘기가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로 있었느니라.”(히2:9)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입니다.(히5:8)

그런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신 주님은 초림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다 통달하여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제가 이걸 누차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는, 이 땅에 계실 때의 주님이 하신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신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지적했지만,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계2:17)고 했고 또 “그 내용을 받은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계2:17)고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기독교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신학 박사가 아무리 연구해도 모릅니다. 너무나 깊은 얘기니까 수개월에 걸쳐서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낮아서 다른 보혜사 성령에게 미룬 말씀이나 흰 돌에 기록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겁니다. “지상에 있는 너희들 중에 내 말을 전할 대표자가 나타나면, 그에게 내가 지시해서 전하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이면서도 사실입니다. 살을 꼬집으면서 생각해도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누가 알아줬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면 내려와 보아라. 그럼 내가 믿으마.” 하고 조롱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오늘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다 보니, 깊은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사명을 맡은 주인공이니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Chapter 18.

이긴자 감람나무의 시대적 배경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입니다. 율법을 떠나서는 죄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입니까? 선과 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선이 있는 곳에 죄가 대립되고, 죄가 있는 곳에 선이 구별됩니다. 죄가 없으면 선도 없습니다. 밤이 없이는 낮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구별됩니다.

율법이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규례입니다.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 의해 살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는 모세 율법을 숭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 율법에 따라 선과 악이 규정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선이고, 율법을 어기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흔히들 모세는 이스

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인물인 줄로 알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필요로 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표시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구 사항이 없으면, 율법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할 때 국법이 정해집니다. 국가와 백성 간에 필요한 것이 국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율법이 정해졌다면, 그건 양자 사이에 연결이 있음을 뜻합니다. 연결이 없으면 율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서로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고자 하실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지시가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신경을 쓰시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신경을 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칭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지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상대로 하여 모세에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로 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모세는 결코 반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는 사양했습니다. 한편 모세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싫습니다.” 하고 거부했습니다. 또 애굽 민족을 다스리는 바로도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지내러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격다짐으로 일을 추진하신 겁니다. 즉 애굽을 떠나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보따리를 싸 가지고 떠나게 하고, 모세를 앞장서게 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3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돌아온다고 바로에게 이르라는 거짓말을 시켰습니다.(출5:3) 40일 걸려도 들어가기 힘든 거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출12:37, 민11:21) 60만이란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다 합친 수입니다. 거기 아녀자들까지 합친다면 몇 백만이나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설 운동장에 모였던 몇 만의 수가 흩어지는 데도 길이 메어 혼란이 일어나는데, 몇 백만이 이동한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3일 동안만 광야에서 제사 지내러 간다고 이르라고 지

시하셨습니다. 3일 동안 나갔다가 여차하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한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들을 끌어낸 것입니다. 이때에는 사람의 의사나 처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끌어낸 겁니다. 일단 끌어내 놓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야 할 모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하신 겁니다. 홍해는 왜 갈랐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하시려고 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목장에 가보면 주인이 잠을 설치면서 가축을 기릅니다. 그가 소나 닭을 위해서 기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계셨던 겁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광야에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 고생스러워 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당신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게끔 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내려라.” 하시는 겁니다. 첫째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

기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든 싫든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고,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은 벌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 오늘날까지 너희를 자식처럼 길러 왔다.” 이겁니다. 즉 “너희가 이걸 안 하면 나는 너희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의가 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안 받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면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할례를 받으라는 지시만 알고 있는 사람은 할례를 받는 것만이 의로운 줄 알고, 받지 않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그 독생자를 믿으면 영생하게 하시겠다고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때 독생자를 믿는 사람이면 영생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정죄가 됩니다. 왜 정죄가 되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믿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이긴자 감람나무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지는 그 율법과 강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의 시대에 필요한 율법을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를 믿을 때에는 법이 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제정 공포한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걸 시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법을 바꾸려니까 할례를 폐지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이미 제정된 법이 제일이라 하여 무수한 생명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그 법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린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이긴자가 나와라, 그럼 이긴자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겠다.’고 했습니다.(계2, 3장 참조) 그럼 이긴자가 나왔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안 이뤄지면 성경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이비 종교처럼, 교주가 감언이설로 교인들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역사를 봅시다. 계시록에 예언된 이긴자가 나타나면, 이긴자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됐든, 이긴자가 나타나면 하나님과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긴자를 통해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지키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필요했던 겁니다. 딴 나라 사람들, 즉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에게는 해당치 않았습니다.

감람나무 시대에는 성경에 기록된 감람나무의 슬하에서 법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이것 모르고 비판하면 성경 원리에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비판을 주의 종이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종도 그걸 다 거쳤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나타나면 주님의 요구 사항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법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여 년간 떠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나 여호와에게 필요한 생명체를 배출시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현시점에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배출시켜 달라는 지시가 어느 교회에 있었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런 지시가 없이 믿는 사람들하고, 그 지시에 따라 믿는 사람들하고 믿는 방법이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단이라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의 유무가 다른 겁니다. 왜 다른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 시대의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또 주께서 직접 택하신 종입니다. 주님을 우리만 존경합니까? 세계 만민이 예수님이라면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해라, 저걸 저렇게 해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비중이 대단한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 아래서

죽어가고 있지만, 처음 창조될 때의 인간은 누구의 형상과 같았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비중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이 같이하는 자는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고전6:3) 바울이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한 말을 천사가 와서 변경시켜도 저주를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갈1:8)

즉흥적으로 택함을 받은 바울의 권한도 것처럼 막강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두 감람나무의 권한은 그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달리 보라는 뜻은 백만 분의 일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바로 나를 놓고 기록하였느니라.”(요5:39)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믿어 줬습니까? 믿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수천 명이 쫓아다니다가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자 다 도망가고 주님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 도망갔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긴자의 역할을 하는 감람나무는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고 감람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없을 때 이미 감람나무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가 되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교역자들은 10명, 20명을 모아 놓고 예배를 보다가 100명, 1,000명으로 늘어 가면 훌륭한 목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감람나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따르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따르기 전에 저는 이미 감람나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오늘날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후에 슬그머니, “내가 감람나무다.” 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미국의 빌리 그래함이 세계적인 대부흥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이 안찰을 합니까, 뭘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안찰하는 사람이 주의 종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힘들습니까? 바로 이긴자 감람나무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만 빼고 그냥 기적을 행하고 병이나 고쳤다면 대단했을 겁니다.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병 한 번 고치지 않았어도 ‘와, 와’ 하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야 모여듭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감람나무가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신령한 말씀들을 터뜨려도 오기를 합니까,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기를 합니까? 사이비다, 이단이다 해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일반교회

는 조금만 병이 낫고, 방언이나 받으면 그게 무슨 신의 조화인지도 모르고 몇 십만이 모입니다. 그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걸 알길 합니까? 오늘날 영광의 주님이 어떠한 존재로 계신지 상상이나 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부흥이 잘 됩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 가운데 싸워 이기는 우리 역사는 적은 숫자를 데리고 일하는 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일반교회에도 하나님이 쓰실만한 그릇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러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시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기름부음을 받아, 제가 오늘날까지 하나님께 이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저 같은 것을 통해서 필요한 군병의 수를 조금이라도 채우시고자 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도 저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안간힘을 쓰는 대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상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옛날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자를 따르는 자는 각기 메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마10:38) 고 했습니다. 합당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섭리의 귀중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Chapter 19.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알라



요즘 추석 때가 돼서 제사를 많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에는 영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곳곳에서 지내는 제사를 마귀 괴수에게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제단과 성전을 주관하는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제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고, 마귀는 마귀대로 자기 괴수에게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는 성전을 따로 짓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영광을 드립니다. 성가대원 100명이 성가를 하면 그 찬양이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합당치 못한 것은 걸러내고 합당한 것만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합니다. 마귀의 괴수에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즉 그 괴수가 기뻐하는 것만 지

상에서 올라갑니다. 그 중간에서 활동하는 것이 줄개 마귀들입니다. 그리하여 대왕 마귀에게 영광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명절 때 다 하면 이 줄개 마귀들이 더욱 극성을 부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전쟁이라는 말을 나는 누차 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투쟁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여러분의 움직임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겔3:8-9)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주지 않고 반발하더라도 주눅 들지 말고 계속 전하러 이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강박한 모습으로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당부하셨겠습니까?

내가 청량리에서 몇 십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 기껏 설교를 하고 나면, “보라.” 하고 그날 밤 이상 중에 교인들의 설교를 듣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인들이 저마다 딴 생각을 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네 말을 저렇게 의심하고 못미더워한다.” 하시는 겁니다. 이삼십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20여 년간 이 역사를 이끌어 오면

서 여러 차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상으로,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알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남이 볼 때에는 우스꽝스러워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특히 직분을 맡은 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눈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과 예배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올라가 누적되기도 하고, 또 누락되어 헛수고에 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범죄하면 안찰을 받아 사함 받은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범죄하고도 안찰을 받지 않고 찬양과 예배를 드려 봤자 그 제사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주께로부터 지시 받은 어떤 깊은 영적인 말씀을 전해 드리면 은혜스러운 영의 양식으로 소화되지 못하고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아직 체계가 서지 않았으니 보류하여라. 때가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이 내려옵니다. 때가 이르다는 것은 따르는 양떼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의심한다는 겁니다. “양떼들이 체계가 서면 밝혀라. 그 이전에는 입을 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앞선 역사에서 박 아무개를 통해 은혜 받던 사람들은 순진하게 들었지만, 네 밑에 다시 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 그렇게 알고 일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해 보

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무릎을 꿇을 때 인도자가 저니까 저를 보실지 몰라도,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 제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움직임을 주님이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새길 것은 새기고 제할 것은 제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속3:9)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겔3:1-3) 에스겔이 이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책을 먹으니까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이겁니다. 에스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입에서 꿀같이 달다는 것은 기분이 좋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에는 ‘애곡과 재앙의 말’(겔2:10)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듣기 싫은 말입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선지자를 좋아할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에스겔이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무릅쓰고 설교를 계속하려면 평범한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피하고 주눅이 들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얼굴을 두껍게 만들 테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강력히 전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얘기로만 들을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

은 여러분들에게 21년간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성서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영적인 깊이를 모르고 이렇다 저렇다 할 때, 개인적으로는 설교하고 싶은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설교를 계속하게끔 하기 위해 에스겔의 경우처럼 얼굴을 두껍게 해 주신다 이겁니다. 용감히 나가서 배짱 좋게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평범한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저 말하면 만족하겠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봅시다. 우리 주님이 쉬운 말을 하실 때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깊이를 조금 하시니까 제자들까지도 수군거립니다. “인자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라. 너희 조상이 주는 ‘만나’는 먹어도 죽었거니와, 인자가 주는 ‘만나’는 먹으면 영생하리라. 인자가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인데 이걸 곧 인자의 살이니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요6:48-53)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설교를 듣다 말고 사람들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다 나가 버렸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차마 나가지 못하고 설교가 끝나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너는 이해가 가냐?” 하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왜 수군거리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은 육에 관한 말이 아니라, 영에 관한 말이니

라. 육은 무익하니라.”(요6:61-63) 하고 설명하신 겁니다.

79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영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양떼들이 이상하다고 세 명, 네 명이 입을 모아 수군거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보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교인의 수가 많기를 합니까? 다른 교회는 몇 만 명이 모여 몇 부제로 예배를 보면서 미어지는 판에, 사람 몇 백 명 모아 놓고 예배 보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한다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계시록이 중요시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육적인 귀를 가지고 주의 종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겁니다.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은 아무나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일반교회에서 장로를 40년 했다, 권사를 50년 했다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내 설교를 들으면, 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멍해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만 전하는 사명을 맡아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아 일하기가 힘든데, 오늘날 우리 역사는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악한 시대에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알곡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오늘 교인 10명이 들어오고 5명이 떨어진 다음에, 내일 20명이 들어와서 교인이 불어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10년, 20년 따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의 종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을 내가 알곡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모인 사람의 수가 100만 명이 돼도, 만들어지지 않으면 헛수고에 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이라도 알곡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50% 이루어졌으면 100%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70% 이루어진 사람이 떨어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다시 70%까지 이루어지려면 또 그만큼 기간이 걸려야 합니다. 일반교회의 부흥 운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힘들지만 주의 종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일평생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 일평생,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생명체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체계가 선 사람은 알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수만,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를 외면하시고, 얼마 안 되는 교인이 모인 이곳을 통하여 역사하시는가? 그 점이 문제입니다. 세마포를 입는 성도가 되는 것이(계19:8)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옛날 세마포는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만이 입는 영광의 옷이었습니다. 주의 권능이 아니면 세마포를 입는다는 건 어렵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예수를 믿고 선을 행하면 얼마나 행하겠습

니까? 특하면 할 것 다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가둬 놓고 신앙 지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중처럼 산속에 모아 놓은 것도 아니고, 기도원처럼 울타리 속에서 먹고 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회 활동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이 되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세마포를 입습니까? 그걸 입혀줄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체계만큼은 세워야 한다 이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터득하여 굳건한 신앙만큼은 가져 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조차 없이 엉뚱뚱 보낸다면 어떻게 세마포 옷을 입힐 수 있습니까? 아무리 주의 종에게 다듬어 세울 능력이 주어져도 의합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암3:3)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성인군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오늘날 이 역사만큼은 제대로 알고 따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고만 있으면 영적인 옷은 주의 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입혀 줍니다.(계 19:8) 거듭 강조하지만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겁니다.(슌4:6)

성인군자라도 진리를 모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면 세마포를 입을 수 없는 거고, 사회에 나가서 어지럽게 살지라도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주의 종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은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섭리로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둠의 세

력의 지배하에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입으며, 무슨 땅재주를 부려 정결해집니까? 신령한 것은 주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에 신령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인군자도 지상에 사는 존재이지, 하늘나라에서 떨어진 존재냐 이겁니다. 다 소용없는 겁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에덴성회를 알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자상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성경에서 어느 한 구절만 딱 떼어다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 자체를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감람나무라는 체계 속에서 신앙을 지켜 나갑니다. 그런 여러분이 감람나무 역사가 무엇지를 깊이 모른다면, 여기 와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성교회에 나가시면 됩니다.

안찰은 왜 받느냐? 주의 종의 손이 닿을 때 성령이 위로부터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직접은 못 받습니다. 악령이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일반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 주시려고 해도 내려 주실 수 없습니다. 마귀가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줄기를 통해서만 내립니다. 그 줄기가 이긴자입니다. 그래서 이 손길을 통해서 성령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찰의 귀중성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처음 안찰하면 2, 3초도 안 가서 눈이 뒤

통수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신이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의 손이 아픈데 그 사람의 눈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많이 벗겨져서 임원회의 때 몇 백 명 안찰해도 괜찮지만, 옛날에는 열 명만 안찰해도 손이 시퍼렇게 죽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잖습니까? 요술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안찰을 처음 받을 때 오장육부가 뒤집히고, 토할 것 같고, 뇌신경이 마비되고 하는데, 그건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얼 뜻하느냐?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날 만들어 내는 재료가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분명히 온 세상의 주를 모신 두 증거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계11:3-4)

마귀가 앞선 역사를 낚아채니까 전 기독교에 암흑이 휩쓸었습니다. 왜? 그가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속4:14) 때가 되어 이 악령의 앞잡이인 짐승을 잡아 버리면 모든 악의 세력이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긴자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이긴자가 꺾이면 주님이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그걸 21년 전에 주께로부터 지시 받고 나온 겁니다. “너만 알아라. 입을 봉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밝히라.” 하셨기에 요즘 조금씩 밝히고 있는 겁니다. 체계가 선 사람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우리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남이 볼 때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어

뎀의 세력이 이곳을 향해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역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넁개 버리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은 악의 장난이다 이겁니다. 여기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 속에 들어온 여러분이 일반교회에 다니듯 안이한 생각으로 문턱을 들락거린다면, 그런 신앙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하늘에선 다 아십니다, 저는 몰라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천사들을 통하여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속죄함이 있는데, 안찰이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안찰로 소멸 받으니까 다행이지, 일반교회에 다니면서 범죄하면 속죄함이 없습니다. 왜? 지금은 감람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과 연결이 되어야 속죄함이 있지, 방언이나 한다고 속죄가 되는 줄 안다면 착각입니다. 그건 다른 신이 들어간 겁니다.

속죄란 주의 보혈 이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주의 보혈은 감람나무를 통하여 연결됩니다.(속4:12)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속죄함 없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갑니까? 빛의 세계에는 어둠이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설명한다고 하루아침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주의 종도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아무리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아 가지고 일해도 때로는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따라오는 것도 힘든데, 이끌어 가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별의별 사람을 다

상대하면서도 주의 종의 오장육부가 남아 있는 게 다행입니다. 세상 일 같으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해 나가고 있습니다.

Chapter 20.

주님께 필요한 성도가 되자

- 성탄절을 맞이하여 -



성탄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사스러운 날로 여기는 세계적인 명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세주를 출현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 민족을 통해 전개된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수태에 대하여는 영적인 차원에서 더듬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믿지 않을 것을 내다보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동정녀의 탄생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늙도록 아이를 못 낳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고,

사가라의 아내가 세례 요한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였습니다. 혹자는 이것도 성경 기사가 미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닌 특징의 하나는 미화를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은 “너는 흙에서 취했은즉 흙으로 돌아가리라.”(창3:19)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생기는 어디로 가는가? 생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메시아가 탄생되었습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탄생되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와(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꿈에 나타나 “네가 아기를 배게 될 것이다. 너는 복 받은 여인이다. 네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여,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눅1:34) 하고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동정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고 말했을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눅1:35) 하고 통고했습니다. 독생자의 동정녀 탄생을 있으려면 성령이 정자의 역할을 하는 물리적인 작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외부로부터 생식 작용을 하

는 물질이 와야 회임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에게 그런 물질이 같이 하여 잉태한 겁니다. 그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유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같은 마리아의 배를 빌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형제들은 요셉의 작품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탄절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섭리 속에 살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생각한다는 것은 새로운 감회를 자아내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주님도 언약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역사를 감회 깊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며, 둘째로 신년을 맞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로부터 해야 할 일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숙고해야 하고 경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은 언제나 1년의 우여곡절을 회고하는 절기도 됩니다. 그것은 장성한 성도로서 험산 준령과 세찬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우리의 발자취가 하나님 앞에 떳떳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판정을 내려 주실지 자못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숙명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데려갈 수 있을까 하고 주의 종은 밤잠을 설치며 고심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온갖 계교로 여러분을 끌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님의 역사에 몸을 담은 사람은 누구나 하늘에서 쌍수를 들어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친히 지으신 인간들에게 처참한 고통을 당했어야 하는가를 논한 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전쟁을 할 때, 어려울수록 희생이 많아집니다.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전쟁 때, 미국이 많은 희생 없이 치밀한 작전으로 승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미국의 전략가를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마귀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름지기 희생이 적은 승리를 하셔야지, 아끼고 아끼는 독생자를 죽였으니 그 전쟁은 자랑스러운 것이 못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무슨 자랑스러운 큰 행사나 되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주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못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십자가를 잘 지셨습니다. 잘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은 이런 기도가 귀에 거슬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보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을 우리는 최대의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가 처

참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내려다보시면서 가슴이 찢어지게 안타까워하신 것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살 길이 없고, 죄악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불리한 조건을 하나님이 안고 계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를 위해 고통을 감당해 다오.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다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과 주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여러분이 되어 달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내 말을 귀담아듣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되고, 주님이 되어야만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과 주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의 자세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전개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탄생시

키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긴긴 세월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민족 가운데 독생자를 배출시켜, 그 민족이 처참하게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계실진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야 합니다.

신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지상에 태어나, 인간이 받아야 할 모욕과 천대를 다 당하시고, 최악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도 싫어했고, 하나님에게도 눈물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걸 해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람을 위해서인 줄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궁극적인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위주라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이 모든 조건에 앞서는 것입니다. 마귀를 상대하는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물세례를 받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것이 뭐냐? 마귀를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더라.”(마4:1) 주님은 성령을 받자마자 마귀를 만났습니다. 사람을 먼저 대한 게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마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먼저 마귀를 상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 저도 필요로 하시고, 여러분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이 땅

에 오실 때에 인간의 형상을 입게 하신 것도 마귀와의 싸움을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아끼고 감추었던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이었다면, 이건 최후 수단입니다. 그 이상의 처참한 수단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알곡을 만들라고 하셨다고. 주님의 십자가 처형은 주의 종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방법이 아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치에서 볼 때 최고로 비참한 일입니다. 이 비참한 일을 우리 인류는 최대의 영광으로 알고 고맙다고, 참 잘 하셨다고 찬양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지를 그만큼 몰랐다는 겁니다. 주의 종의 설명을 듣고서야 여러분은 일리가 있구나 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영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 일리가 있다고 곧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회복하기 위해(행3:21)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지, 현재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친히 다스리시는 건 메시아 왕국에서입니다.(계20:2)

많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 중에서 보잘것없는 이 이영수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 네가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해 줘야겠다.”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내 그늘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함께 파란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지시도, 언약도 없습니다. 이곳에 한 사람이 오건, 두 사람이 오건, 그 언약을 맺은 장본인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걸 망각하고 자기 기분이 내키는 대로 움직인다면, 일반교회에 가서 믿어야지, 여기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주의 종이 지시는 대로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여기에 필요 없습니다. 100 만 명이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반가워하시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세상은 우리 인류를 위해 오셨다고 좋아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시금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을 앞세워야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찬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찬양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터득해 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으므로 그것도 감안해 가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나를 불러 주신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의무와 사명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더라도 주의 종과 고난을 같이해야겠다는 각오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족한 것을 세워 20년간 함께 하셨습니다. 앞선 역사에 동참했던 당신의 백성을 이곳에 불러오시느라고 무던히 애를 써 주셨습니다. 주님은 현실적으로 우리 역사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주님은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없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한적한 곳에 성전을 짓고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당부하시고, 알곡성전이 완성되자, “이 성전을 통해 내 나라에 들어올 알곡이만 들어질 것이니라.” 하며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길이 펼쳐지는 광경을 보여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새길 것은 새기고 제할 것은 제하는 일곱 눈이 여러분의 뒤를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영원히 펼쳐질 영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려고 주야로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동기부터가 비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면서 어떻게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 밝힐 수는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리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기어코 이루시는데,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앞선 역사가 매장되는 마당에, 저 같은 것을 내세워서 일이 쉽게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세상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습니다. 몇 십만, 몇 백만이 새벽 기도회에 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눈곱만큼이라도 아는지를. 뭘 바라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가를. 그들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날 성탄절을 맞아 한 번쯤 되새겨 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신 것을 알고 이 절기를 보내야 합니다. 성탄절은 결코 기뻐만 할 일이 못됩니다. 주님은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행적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토록 어려운 수단을 동원한 것을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주님은 지

기 싫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맞이함으로 해서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부터 주님 앞에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생각과 감정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죽더라도 주의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에게에는 더욱 충성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공로가 쌓여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Chapter 21.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종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발자취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궁극적인 내용을 조심스럽게 언급하시고, 육적인 차원에서 움직인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를 다분히 영적인 차원에서 심어 주고자 무던히 애쓰셨습니다. 그리하여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마8:20) 그만큼 주님은 백성들에게 신앙을 체계화하시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주님은 돌아가시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요16:13)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게 해 주십니다. “내가 떠나고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에게 유익하다.”(요16:7) 즉 다른 보혜사가 오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 즉 생수의 성령은 마귀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체계의 중심이 다른 보혜사의 역사입니다. 감람나무의 그늘에 들어온 사람은 생수와 이슬과 불의 세 증거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로 임한 성령은 한 증거의 성령으로, 약속하신 생수의 성령이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이 별장게 달아올랐으며, 주님도 성령에 이끌리어 가셨는데, 이 성령도 한 증거의 성령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병을 고치고 사귀를 물리쳤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녹명되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 10:20)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리라.”(행1:8)고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120 명이 모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곧 생수의 성령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를 통하지 않고는 세 증거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생수를 보낼 여건이 지상에 조성되어야 합니다.(계21:6-7) 생수가 오게 되면 조만간 마귀와의 승부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새길 것은 새기고 제할 것은 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눅3:9) 구약 시대의 성령을 보완하기 위해 생수의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 생수의 은혜로 시체가 변합니다.

주님은 내가 이 역사를 시작할 때 앞선 역사에서 생수의 성령을

받은 자를 건지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일반교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순교를 당해야 세마포를 입는 것과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입게 하는 것(계19:8)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했습니다.(요16:8) 다른 보혜사를 받아 역사하는 장본인의 말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조롱합니다.

진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조롱을 받는데, 나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우리 역사가 성경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곤경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은 모임에 힘쓰고 힘을 규합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파괴 공작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부어 주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일찍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었지만,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에 경건하던 수많은 사람들, 소위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까지도 하루아침에 심판대에 서게 된 겁니다. 건축가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던 겁니다.(마21:42) 주님은 이처럼 당신을 돌로 비유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에 일곱 눈이 박히게 될 때에는 인류의 죄악을 하루에 제해 버리게 됩니다.(슥3:9)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히는 작업을 하기 전

까지는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더럽히는 것을 천사가 못 막았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다면 손을 나게 하고(슥3:8)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히는(슥3:9) 번잡스러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천사가 막을 수만 있다면 다른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앞에 있으면서도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슥3:1-3) 스가랴 선지자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섬긴 제사장들도 하나님과 마음대로 교류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마귀가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을 타파하는 획기적인 일을 감행해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나게 하시고,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히게 하시는 엄청난 작업을 펼쳐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다윗의 부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사11:10) 요한계시록에는 주님, 즉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고 했습니다.(계5:5)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히게 된 겁니다.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계5:6) 일곱 영이란 완전한 영입니다. 완전한 영이 교류될 때 사단의 세력이 가로막는 것을 퇴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죄악을 제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류가 더러워지는 것은 사단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할 때 그들 자신이 그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고,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더럽다는 말은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깨끗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인간에게서는 더럽다 깨끗하다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더럽힘을 받는 것은 사단의 조종이고, 거룩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조종으로, 신의 능력에 의한 겁니다. 즉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차지하면 깨끗해지고, 마귀가 차지하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을 뺏고 빼앗기는 겁니다. 마귀는 자기 요소로 사람을 더럽히고, 하나님은 생수로 우리를 깨끗케 하십니다.(눅13:1)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스로 새까맣게 되고 싶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천사가 지켜 주는데도 사단의 세력이 강할 때에는 도리 없이 새까맣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만 이런 설명을 하는가 하면, 오늘날 기존의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걸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 말을 납득하게 됩니다. 제가 주님께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어도, 저를 통해 듣는 여러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 설명을 자세히 듣지 않으면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걸로 듣기 쉽습니다. 저는 남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여건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새까맣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 역사에 들어오지 않으면 못 듣는 것이고,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의 종을 만난 사람들만이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요14:17 참조) 그럼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흠

잡을 것 없는 목사, 혹은 선교사, 부흥사가 죽어서 푹푹 썩어갔다면, 이게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마귀의 탓입니까? 하나님과 주님도 이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리이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더럽힌 것도 깨끗하게 하겠다고 각본을 짜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지 못하면 누구나 더럽힘을 면치 못합니다. 그게 신의 ‘룰’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과 신의 조화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사단의 중간에 속해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두 증거자의 시대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귀는 각각 ‘룰’을 지킵니다.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면, 여호수아를 시커멓게 만들어도 하나님이 가만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여건이 조성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룰’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룰’에 대해 내가 ‘요한 계시록 강해’에서 최초로 밝힌 겁니다. 신과 신이 무조건 싸우는 게 아

니고, ‘물’(규례)에 의해 인류를 다스려 나가고, 사람이 죽어도 그 ‘물’에 의해 데려갑니다. 하나님도 데려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는 장소는 기성교회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동참하여 고생 고생하면서 여건을 조성하는 겁니다. 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시시한 말이 네 시대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께 누차 전했습니다. 그런 섭리 속에서 20년 동안 여러분과 호흡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따르는 여러분은 섭리 때문에 새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섭리 때문에 축복을 받고, 섭리 때문에 죽으면 시신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가 이처럼 신령하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좋든 싫든, 인기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을 가야 하니까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마귀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으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는 못 벗어납니다. 막강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여건을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힐 때 마련하겠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겁니다.(눅3:9) 그런데 앞선 역사가 그 꼴이 되니, 주님이 오늘날 그 악의 세력을 막아 나가고 계신 겁니다. 그 방패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과 호흡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여건이 유리하

계 조성될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어
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계14:4)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순종할 줄 알아야 믿음이 선 겁니다. 알
지 못하고 떠들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됩니
다. 이런 말은 체계가 서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둠에게 지배를
받는 불행한 시대에, 여러분은 다행히 섭리 안에 들어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Chapter 22.

창조와 진화

- 22주년 기념 예배에 즈음하여 -



1) 첫째 날

우리 역사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발족된 지 어느덧 스물두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념 예배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우주의 창조에 대해 좀 더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니’, 혼돈이 뭐냐? 물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중구남방으로 어수선한 것을 가리킵니다.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형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죽 끓듯 한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고 했는데, 이 땅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구를 가리킵니

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에 대한 설명이 태양계에 속하는 지구를 중심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창조에 대해 알려면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과학자들은 지구가 탄생된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도 있고, 추측도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땅에 탄생 하셨습니다. 현재 알곡성전은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동서남북으로 거의 중심입니다. 에덴동산에도 중심부에 중요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창2:9)

현대 과학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워낙 방대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아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상 중에 하나님의 세계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농구공만한 진주알을 보여주셨다고. “우주가 워낙 방대하니 네가 여기 와서 우주를 봐야 알게 되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걸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우주 안에서 지구라는 존재는 비유컨대 지구상의 좁쌀알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심부에 있다고 하느냐? 바로 인간이 살기 때문에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수천 억 개의 별들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천체가 지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삼층천에 갔었다고 했습니다.(고후12:2) 그도

영의 세계로 불러 올라갈 때 세 하늘을 거쳤습니다. 두 하늘을 거쳐 셋째 하늘이 여호와의 세계입니다. 우주는 엄청난 겁니다. 바울은 봐도 그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왜? 지구의 움직임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4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이걸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소위 과학자라는 사람들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 별이 도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걸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지구 자체가 움직이는 것을 ‘지동설’이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에 따라갔다고 했습니다.(마2:1) 우리는 성탄 때마다 그 내용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이 안내했다 이겁니다. 즉 별이 움직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올라가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태양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구나 하고 ‘천동설’을 주장한 겁니다.

현대 과학은 지금에 와서 큰소리를 치지만, 지금부터 2천 년 전에 사도 바울은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갔다 왔습니다. 딴 사람들은 이층천이 아니라 일층천의 몇 억만 분의 일도 가지 못합니다. 겨우 지구를 벗어나서 달나라밖에 더 갔습니까?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일층천 안에 있습니다. 이 은하계를 벗어나야 여호와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럼, 천문학 같은 건 근처에도 못 가본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걸 많이 배운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은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저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천문학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도 상상 못하는 걸 얘기하면 그게 인간의 힘입니까? 신의 힘이라는 걸 알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천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칭찬 받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머리 위에 궁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겔1:25-26) 일층 천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밤에 밖에 나가면 맑게 갠 날, 특히 여름에는 부엌에 큰길처럼 쪽 펼쳐진 빛의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망원경으로 보면 전부 별입니다. 그래서 ‘은하수’라고 말합니다. 별들이 물줄기처럼 깔렸다 그 말입니다. 그걸 과학자들은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별들로, 1천억 개라고 합니다.

일층천 안에 속해 있는 은하계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태양계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별의 무리입니다. 이 태양계에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게 전부 불덩어리입니다. 얼마나 큰 불덩어리이면 그 열도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에 따뜻한 온기를 줍니까?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지구보다도 130만

배 큰 불덩어리인 태양보다도 몇 백 배가 더 큰 그런 별들이 일층 천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난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 안에 조그만 천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조그만 천체를 행성이라고 합니다. 태양계에 속한 천체들 중에는 경상북도만 한 것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만 한 것도 있을 거고, 지구의 반쪽만 한 것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어쨌든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새끼들을 거느리고 있는 별들이 많습니다.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행성이 수성입니다. 수성 다음에는 금성이 있습니다. 셋별이라고도 합니다. 금성 다음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다음에는 지구에서 보면 별갈게 보이는 화성이 있고, 화성 다음에는 목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양계를 떠돌던 한 혜성이 목성에 부딪친다고 해서 텔레비전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목성은 지구에서 어마어마하게 멍니다. 거기에 혜성들이 가서 부딪치는 걸 몇 초도 안 틀리고 지구에서 알아냅니다. 현대 과학이 대단한 겁니다. 그 목성 뒤에는 토성이 있고, 토성 뒤에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아홉 개의 별들이 쪽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별들입니다. 이 큰 별들이 거느리고 있는 새끼 별들이 또 있습니다. 지구가 거느리고 있는 별을 ‘위성’이라고 합니다. 달이 그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제일 가까이에서 수성이 태양을 돕니다. 수성은

지구보다 가까우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데 87일이 걸리고, 다음의 금성은 한 150일, 화성은 한 780일 걸립니다. 그리고 화성 다음의 목성은 한 천 몇 백 일 걸립니다. 그런 순서로 돌아갑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1억 4천 9백 5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 뒤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이 쭉 있는데,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힘은 태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도 태양이 변하면 운동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태양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지구의 멸망을 태양이 변하는 걸로 표시한 겁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태양이 변한다는 겁니다.(계6:12) 그게 지구의 멸망입니다.

인공위성이 달나라에 갈 때 대기권을 지나게 됩니다. 달나라로 가는 그 속도가 1초에 30리입니다. 약 12킬로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는 얼마나? 지구가 공전할 때에는 1초에 약 70리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태양의 주위를 1초에 70리씩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약간 기우뚱하게 자전합니다. 똑바로 자전한다면 지구에 계절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태양계에 속한 지구가 창조되는 광경을 성경에 천지창조의 시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지창조가 아니라 지구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천지창조면 은하계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태양계에 속하는 지구를 중심해서 인간 위주로 천지창조의 기록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천지창조를 알려 주실 당시는 문명이 잘 발달된 때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태양계에 속하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관을 말씀하시는데, 워낙 방대한 우주인 고로, 일일이 얘기해야 소용없고, 많은 글을 창세기에 다 할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양계에 국한해서 천지창조에 대한 비결을 종들에게 여러 모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태양계에 속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천지창조를 얘기하시게 되니, 지구의 어머니격인 태양에 대해 언급하게 됩니다.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태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성을 만들고 —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비누를 물에 타 가지고 지푸라기로 찍어서 혹 불면, 거기서 방울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가 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시고, 기운을 불었다고 칩시다. 그때 수천만 개의 별들이 동시에 만들어졌을 때 크기는

다를지라도 동그란 모양은 다 같습니다. 또 만들어지는 재료도 같습니다.

달을 보면 토끼 같은 게 보입니다. ‘계수나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바다일 것이다, 밀림 지대일 것이다, 하고 별 소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암스트롱이라는 미국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습니다. 그리하여 텔레비전에서 중계한 것을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궁금했던 달이 시야에 들어온 겁니다. 달에는 지구와 같이 흙도 있고 돌맹이도 있었습니다. 그럼 지구와 달이 만들어진 재료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가까운 화성이나 금성은 현대 과학으로도 아직 가지 못하고 있지만, 우주선을 보내어 촬영하여 분석해 보니까, 지구와 재료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떠한 별들도 재료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억만 개의 별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별이 바로 지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시기에 다른 별과 달리 보호를 받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그냥 보면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단편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측면이 가미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린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땅이 혼돈한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을 낮이라고 하고, 또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 어둠을 비추는 작은 빛을 다시 창조하셨습

니다. 이걸 두말할 필요 없이 인간이 사는 지구를 향해 비추는 태양과 달입니다.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이 비칩니다. 이렇게 해서 크기는 비교가 안 되는데도 태양과 보름달의 크기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태양은 엄청나게 멀리 있고, 달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천문학에서는 은하수에는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일 천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은하수입니다. 하늘을 육안으로 쳐다보면 뿌옇게 보이고, 망원경으로 보면 아주 작게 반짝거리는 은하수의 별들이 보입니다. 그 하나의 크기가 태양보다 더 큰 것들입니다. 거기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가도 수만 년이나 걸립니다.

성경에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인간들이 아직 살지 않았습니다. 또 지구에는 그 빛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땅이 혼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땅이 완전히 구름으로 가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먹구름이 수천 킬로미터의 두께로 가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어도 지구를 비춰 주지 못합니다. 지구가 암흑입니다.

그것이 차츰 정리가 되어 나갑니다. 그걸 성경에는 하루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때 무슨 첫째 날이 있습니까? 하루는 태양이 떴다가 어두워지고, 어두웠다가 다시 태

양이 떠야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태양이 비추어지지도 않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하루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나중에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쉽게 첫째 날, 둘째 날,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신의 사정을 그대로 얘기해 봤자 알아듣습니까? 영어 선생이 초등학생, 유치원생에게 영어로 어찌고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압니까? 성경은 그런 식입니다.

지구가 정리되어 가지고 그 구름이나 흑암이 걷혀질 때까지의 기간은 1, 2천 년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그 45억 년이라는 학설을 과학자들이 어디서 산출했는가? 이 지구에는 운석이라는 게 떨어집니다. 소위 흘러가는 별이라고 해서 유성(流星)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별뚱이다!” 하고 말합니다. 밤에 누워 있으면 빛이 쏘악 떨어지다가 꼬리를 물고 사라집니다.

이 우주 공간에는 많은 떠돌이별들이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별이 아니고, 고아나 짐시처럼 돌아다니는 별입니다. 이것 혜성이라고 합니다. 이놈은 기껏 돌아다니다가 몇 백 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고, 몇 십 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방랑자입니다. 이렇게 우주를 돌아다니다가 연어처럼 제자리로 찾아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제자리로 비슷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혜성이 몇 년 만에 돌아온다 해서 과학자들이 야단입니다. 그런 별이 우주 공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별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별들의 부스러기들이 와서 부딪치는 수도 있고, 부딪쳤다가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부스러기이지, 보통 경상북도만 한 것도 있고, 서울특별시만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재료는 돌과, 흙입니다.

큰 덩어리가 와서 부딪치면 크게 구멍이 뚫리고, 조그마한 덩어리가 와서 부딪치면 조그마한 구멍이 나서 곰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달은 곰보투성이입니다. 수성과 금성도 곰보입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 부딪치기 때문입니다. 지구라고 어디 안 부딪치겠습니까? 소위 별똥이라는 게 계속 부딪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구만큼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장소로 지구를 택하셨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태양은 지구처럼 생물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덩어리입니다. 지구도 어느 시절에는 불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이 많이 식었는데 아직까지도 땅속은 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화산이 터져 나오잖습니까? 아직도 덜 식은 겁니다. 그러나 더 식으면 지구는 추워서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식혀 놓고 사람이 살게 만드신 겁니다. 햇빛을 받아서 온도가 적당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양 자체가 지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못하는 태양계의 별들에서는 지금도 계속 변화

가 일어납니다. 폭발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 하나만 조종하면 태양계는 그냥 갑니다. 즉 태양에 속해 있는 아홉 개 떠돌이별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태양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계6:12) 하늘이 종이 축 말리듯이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계6:14)

태양은 아홉 개의 떠돌이별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들이 돌아옵니다. 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태양에서 멀어지고,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면 가까이 끌려 들어옵니다. 이와 같은 태양과의 관계가 변하면 아홉 개의 떠돌이별은 자동적으로 변합니다.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 지구를 택하여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은하계를 찍은 사진을 보면, 별들이 나선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을 이루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에 의해서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 태양이 비추고, 밤에는 달이 비춰 사람이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1:16)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축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하고 말입니다. 그게 지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금성이나 토성이 아니고, 멀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지구 하나를 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을 지구에서 살게 하려고 계획하

셨기 때문입니다. 지구에서 아담은 여호와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전 우주를 지배하는 권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창1:28)

당시는 아담이 마음대로 우주를 왕래할 때입니다. 지금의 과학의 힘을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빛으로도 몇 백만 광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다닐까? 그러나 범죄하기 전의 아담은 산 영이기 때문에 번개처럼 우주를 왕래했습니다. 번개도 아니고 번개보다 몇 백만 배 빠른 것입니다. 범죄한 다음에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만. 여러분이 영으로 화해되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주를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몇 백만 광년을 가도 우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태양에서는 엄청난 열량의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 생물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물들이 태양에서 오는 열도나 에너지를 필요한 것만 받아서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구의 주위에 ‘대기’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지구를 에워싸는 보호막을 만드신 겁니다.

외부로부터 집채만 한 운석이 날아와서 공기와 부딪쳐서 빛을 발하는 게 소위 유성, 즉 별뚱별입니다. 운석이 내려오는 동안에 타면서 빛을 내는데, 다 타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을 사람들이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외계로부터 온 부스러기인 별뚱, 즉 운석을 주어다가 검토합니다. 이게 몇 년이나 된 돌이냐? 한 30억 년 됐을 거다, 그럼 지구도 그때 만들어졌을 확률이 많으니

까 지구의 나이를 추정하는 겁니다. 요컨대 여호와께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내용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지구에는 대기라는 보호막을 쳐 놔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보호막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호막은 지구 자체에서 생성이 됐습니다. 대기 안에서 생물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산소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불이 잘 타지 않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기는 산소와 질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호흡이 곤란하니까 병원에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산소 탱크를 갖다 놓고 코에다 대고 숨을 쉬게 하면 그 사람은 육체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서 한참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딱 떼면 산소가 부족해서 죽어 버립니다. 그게 다 지구상에 있는 물체들입니다. 외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지구에 대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대기 속에 수증기를 만드셨습니다. 수증기는 곧 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는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물이 있으라 하매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매 있었다.’, ‘짐승이 있으라 하매 있었다.’ 해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태양도, 달도, 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저녁이 되

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비행기로 서울에서 부산이나 제주도로 향하려면 보통 8천 미터 상공을 날아갑니다. 8천 미터면 땅에서 20리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상에서 1만 2천 미터까지를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과학자들은 그 층을 구분해서 로켓을 쏩니다. 제일 밑에서 올라갈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공기의 저항이 대단해서 그렇습니다. 태양 빛도 공기층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닿기 때문에 알맞은 온도가 유지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지상에서는 섭씨 20~30도였는데 금세 비행기 계기판에 영하 40도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춥다는 얘기입니다. 그 추위 속을 비행기가 날아가는 겁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는 1만 2천 미터 상공을 갑니다. 높이 뜰수록 공기가 희박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 산소를 넣어 줍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 지상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피곤합니다.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는 사람은 산소마스크를 합니다. 멕시코 같은 나라는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마라톤을 하면 한국에서 백 미터 뛰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그곳에서는 몇 미터만 뛰어도 공기가 부족해서 숨이 헉헉거리게 됩니다.

높은 산에 가서 불을 피우면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산소가 적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많아야 그만큼 산소가 많아서 불이 잘 붙습니다. 소화기라는 게 그거 아십니까? 불이 왕창 났을 때 싸아 하고 뿌리면 공기를 차단시켜 버립니다. 공기가 없으면 불이 다 꺼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만물이 살아가기 편안하도록 공기를 알맞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공기가 땅에서 한 500미터 위에는 없다면, 그것도 골치 아픕니다. 비행기가 500미터 위로 뜨려면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인간이 사는 지구는 땅에서부터 1만 2천 미터까지는 공기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아래보다는 위가 적습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천문학입니다.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과학자도 성경을 상고하고, 음악가도 성경을 상고하고, 법률가도 성경을 상고합니다. 성경이 모든 학문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옛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늘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도대체 어떻게 펼쳐지게 되었을까?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떴다가 지고, 달도 만월이 됐다가 초승달이 되고, 별들도 나왔다가 지고 해서 지구는 가만히 있지만 태양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인다는 이유로 ‘천동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의 말이 옳다고 지지했습니다. 그러자 교황청에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여. 하나님께서 태양이 움직이는 걸 못 가게 하셨는데 무슨 똥딴지같은 소리를 해. 그건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야.” 이래 가지고 입을

막은 겁니다. 그 당시엔 교권주의자들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아니다. 지구가 움직인다. 천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여서 태양의 주위를 도는 거다.” 하고 고집을 세우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재판을 하면서 “네가 지금이라도 지구가 돌지 않는다 하고 ‘천동설’을 주장하면 놓아주마.” 이 사람이 살고 봐야겠다고 생각하여, “지구가 돌지 않습니다.” 하여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어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제 옳은 것으로 판단되기까지는 병신 취급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은 편안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거부반응을 받게 마련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2천 년 동안 내려온 보수주의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나 하는 것으로 들리는 감람나무 역사를 쉽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지구가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짝 차 있다고 했습니다.(창1:2) 그러면 태양과 달이 있어도 지구에 비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어도 그걸 모릅니다. 이것을 정화시켜서 태양과 달이 지구를 비출 수 있는 시대가 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물이 모여라’, ‘새도 날아다녀라’, ‘풀도 자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지구입니다. 지구는 묘하게 물과 육지로 나누어집니다. 다른 별은 육지만 있는데 지구만큼은 물이 있습니

다.

여기에 앉으신 권사님도 그렇지만, 저부터도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눈이 달리고, 귀가 달리고, 손가락이 달려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핵, 즉 하나의 수정란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되어 눈이 생기고 귀가 달리고 손톱, 발톱이 생긴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 탄생하고 죽습니다. 사람만 나고 죽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서 없어지고, 나서 없어지고 하는 기간이 워낙 길어 수억 년도 가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지, 별들도 역시 태어나고 사라집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아가미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아 살게 되지만, 바깥에 나오면 공기를 마시지 못해 죽어 버립니다. 반대로 공기를 마시고 사는 우리가 물속에서 물고기가 아가미로 숨 쉬는 장소에 가면 죽어 버립니다. 사는 것이 이처럼 다릅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갖춰야 간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못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서 살 수 있는 자를 음부로 데려가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격을 갖추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들어 주신 덕택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와 물은 인간들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둘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창1:6-8)

예수님 시대나 중세기,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5, 6백 년 전만 해도 천지창조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믿으려면, 지구에 관한 모든 내용이 사람들에게 밝혀진 시대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은 하늘을 뜻합니다. 궁창이 있는데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 물이 있는데 물 가운데다 하늘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이 정해져 있으며, 코끼리가 태어나서 죽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곰뽕이를 거쳐서 매미가 되었다가 죽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은 사람과 매미가 같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기간도 다르고 죽게 되는 기간도 다릅니다. 은하계 안에 1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면, 그 1천억 개의 별들이, 각각 어느 기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죽는 기간이 워낙 길어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전에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반지름 75억km의 범위 안에 결집된

별무리를 태양계라고 합니다. 그 태양계 안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와 목성, 수성 등이 속해 있는데 이진 동시에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의 율타리다 이겁니다. 한식구인 셈입니다. 이런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천억 개가 있습니다.

하늘이 세 층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갔다 와 간증한 데서 나온 얘기입니다.(고후12:2) 그러니까, 내 말은 안 믿어도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의 말은 믿어야 합니다. 하늘이 세 단계다 이겁니다. 한 단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들인데, 세 단계를 어떻게 압니까?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은하계를 주의 종이 이상 중에 봤으니까, 3단계에 대해 실감하는 겁니다. 마침 바울이 3단계 소리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제가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제가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제 말을 누가 믿어줄 겁니까? 오늘날 모든 천문학자들은 밑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태양계 하나도 모르면서 떠듭니다. 우주 전체를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계 하나를 겨우 사진 찍어다가 왈가왈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어떻게 이 방대한 우주를 압니까?

우리 태양이 만들어진 지 50억 년이 되었는데 100억 년이 있어야 꺼진다면 50억 년 후에는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다 소멸하게 됩니다. 태양의 수명에 따라서 행성들은 죽고 삽니다. 태양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태양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지구대로, 금성은 금성대로, 목성은 목성대로 각기 활

동을 하면서 식어 갑니다. 용화가 되어 뭉치면서 식어갈 때 불이 죽 끓듯 하여 물체가 만들어지면서 수천만 년이 흘러갑니다. 이렇게 되니 빛을 발산하는 태양도,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달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낮에는 태양 때문에 밝고, 밤에도 달 때문에 밝아야 할 지구가 밝을 수도 없고 따뜻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 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깊은 흑암이 사라져서 수면이 이루어지고, 수증기가 물처럼 수면을 덮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구에서 보는 하늘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하늘에 물의 역할을 하는 수증기나 흑암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갈라 버려야 합니다. 즉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신다는 건 물의 세력을 갈라 버린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자, 이제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나타납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궁창 아래의 물은 이 물의 물을 말합니다. 궁창 위의 물은 구름을 말하는 겁니다. 궁창 위는 하늘 쪽이고, 궁창 아래는 지상인데, 이것을 둘로 나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창 1:7) 이제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창1:8) 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둘째 날이라고 알려 주시지만, 하나님이 두 번째 단계의 작업을 하신 겁니다. 지구가 완성되기까지 일곱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창2:2) 두 번째 단계에 하늘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공창 쪽으로 형성되는 물하고 지상에 형성되는 물이 만들어질 정도면, 지구는 많이 식은 겁니다. 아까 공허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으로 다니는 그러한 상황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개가 걷힌 건 아닙니다. 태양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와 달은 아직도 가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될 때 비로소 일월성신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식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식는 중입니다. 식어가면서 지층이 얇은 곳에 불덩어리가 분출합니다. 이것이 화산입니다.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은 화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와이에 갔을 때 화산에서 용암이 솟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이 땅속에서 계속 솟아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식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느 시점에 가면 또 빙하의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는 사실상 땅속에 있는 불이 아니라, 태양에서 내리쬐는 햇빛의 온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창세기에서 주님 시대까지 4천 년, 또 주님 시대부터 감람나무 시대까지를 2천 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래서 기독교에서는 가인 시대부터 지금까지 6천 년이라고 말합니다. 수억만 년의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인간과 교류하시는 신의 위치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첫째 날을 첫째 단계라고 칩시다. 그 단계가 지난 후에 또 다른 단계가 옵니다. 그건 이미 지구가 크게 변화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 또 다른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시대가 흘러갈수록 지구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태양도 지구도 다 사라집니다. 수명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별 자체가 폭발하면서 다른 별이 또 태어납니다. 이것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허블우주망원경으로 지구 바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별이 터지면서 불꽃이 퍼지는 길이는 수 광년이 가야 하는 거리로 우주 안에 퍼져 나갑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지구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까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 자체가 변화해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더 뜨겁게 해서라도 사람이 살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멸망시키신다면 간단하겠지만, 살려주시려면 하나님은 손을 쓰셔야 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실지는 모르지만, 이치는 그렇다는 겁니다.

별은 하나가 파손되면 그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갑니다. 지금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늘어갑니다. 사람을 처음부터 많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단 두 명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57억

입니다. 전쟁과 병이나 사고로 죽어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생물들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두 쌍씩만 살게 하셨습니다.(창7:2) 그런데 오늘날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지구를 온통 뒤덮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별들도 하나님께서 자꾸 늘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기와 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기와 물만 있으면 꽤 오래 삽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 가장 축복 받은 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물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생수를 검사해 본 결과, 여기서 나오는 생수가 최고입니다. 국립과학연구소에서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리스털 생수라고, 생수 공장을 하던 사람이,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서, 나갈 때 울면서 나갔습니다. 미 8군에서 바로 여기서 나온 크리스털 생수를 마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또 저도 몰랐던, 물 좋고 공기 좋은 이런 아름다운 동산에 알곡성전을 짓도록 지시하시고,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물을 마시고, 예배를 보고, 잠을 자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축복한 물을 일부러 마십니다. 왜? 씻어야 하니까. 물을 눈에 넣고 닦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물이 영적으로 청결제가 됩니다. 그러

므로 우리한테는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축복한 물이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 좋은 이곳을 택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알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헤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해 주시니, 지나고 보면 고맙고 감회가 어릴 뿐입니다.

3) 셋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데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 드렸습니다.

우주의 창조론을 우리 인간들이 논한다는 것부터가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겁니다. 우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감히 우리가 논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당신의 경륜 가운데서 인간들에게 요구 사항이 있으시므로, 어쩔 수 없이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 겁니다.

만일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시대라면, 우주의 형성과정

이나 상황을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필요도 없거니와, 또 가르쳐 봤자 아무 가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신의 섭리를 밝히는 마당에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우주의 창조를 감출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에게 상상도 못했던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과정에서 우주의 창조와 아담, 하와 의 옛 시절을 보여주셨으므로, 오늘날 여러분에게 창조론을 심도 있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요즘 몇 시간에 걸쳐 알기 쉽게 현대 과학과 연결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초에 가스로 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둡고 흑암이 자욱했습니다. 이것을 세 번째 되는 날에, 본격적으로 창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날까지는 하늘을 지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물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산소와 수소로 만드셨습니다. 이걸 현대 과학이 이미 오래 전에 밝혀내서 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인들, 지구를 여러 바퀴 도는 사람들은 물을 만들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물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물은 산소와 수소의 화합물이므로 이 두 원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마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시려면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합니까? 산소와 수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태양계 안에 물이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물을

만들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산소와 수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지구의 육지를 만들어 놓은 요소가 있습니다. 흙, 땅, 바위 등이 그것입니다. 다른 행성들에도 이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날에 지구에다가 물을 가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천체에는 하나님께서 손을 안 대셨습니다. 목성이나 토성은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몇몇 유성에는 온도가 너무 높든지 너무 낮아서 수증기나 얼음의 형태로만 극히 소량 존재합니다. 지구처럼 물이 풍부하게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춘 행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 번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는 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지구가 깊은 흑암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불덩어리가 됐든, 무슨 덩어리가 됐든, 죽 끓듯 하는 가운데 그 열기로 가스가 무지무지하게 멀리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정리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에 물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육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지가 드러나라.” 하고 말씀하셨다면 지구는 처음에 무엇으로 덮여 있었습니까? 물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물로 덮으셨습니까? 지구를 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구는 태초에 불덩어리였으므로 식히려면 물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런 그 불덩어리인 지구를 물로 뒤덮으면 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끓습니다. 그 끓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흘

렸습니다.

지구의 그 엄청난 물이 열기에 의해 끓는 동안 거기서 염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물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끓는 동안에 지구에서 물의 열기, 즉 수증기가 계속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수증기가 하늘에서 냉각되면 다시 물로 변하여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전이 이뤄집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하늘에서 식어서 다시 내려올 때는 차기 때문에 지구를 식혀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 식은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한군데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 위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창1:9) 이때 육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과학자들은 오늘날, 몇 십억 년 전에 어느 대륙이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지구가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데 그 바다가 정말 크긴 큼니다. 아주 지루할 정도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오늘날 비행기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공기의 마찰을 받지 않고 이동하도록 만들자고 합니다. 그것은 대기권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비행하면 가능합니다.

이 지구는 대단히 신비한 것입니다. 어떤 물체가 이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은 대기권이 아니라 3단계 우주를 뚫고 0.1초도 안 걸려서 오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0.1초도 안 걸려서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러니

이거 빛의 속도가 어떻게 해 봐야 비교가 됩니까?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빠르고 세밀하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4) 넷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취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천지창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신자들, 과학자들, 철학자들에게 희한하고도 또한 기적적인 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창조론을 주장하고, 과학자는 진화론을 주장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창조다, 진화다, 하고 말입니다. 창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얘기고, 진화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현대 과학을 연결 지어 가면서 창조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은하계나 태양계 안의 현상들은 천문학자들이 더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섭

리에 입각한 창조론은 아마 그 사람들보다는 주의 종이 앞설 겁니다.

나는 창조의 첫째 날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수면으로 운행하시면서 직접 지구에 관여하시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미 우주는 지어져 있고, 하나님이 지구에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 혼돈한 상황 속에 있는 지구에 강림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운행은 한군데 정착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떠다니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하나를 지구에 심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날에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처음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이 근대 과학으로 말하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2, 3억 년은 흘러야 합니다. 현대 과학은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 45억 년 중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기간을 여호와와는 되도록 짧게 단축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구를 식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만들어 지구를 에워싸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땅덩어리는 섭씨 약 1,000도 이상 가는 온도로, 지구가 불덩어리였던 겁니다. 그 불덩어리를 산소, 수소를 합쳐 물로 에워싸게 되니까 바로 거기에서는 엄청난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는 식어가고 있었으며, 그 기간을 계산하여 과학자들이 지구의 수명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언젠가는 수명이 끝난다, 태양

도 얼마 가면 수명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워낙 기니까 우리 인간들로는 논할 수가 없는 거지만,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면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럼 방금 성경을 읽어 드린 대로, 뜨거운 불덩어리인 지구가 식은 다음, 하나님께서 물을 한군데로 모으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셋째 날입니다. 육지가 드러나서 거기서 각종 채소, 수목, 수풀이 우거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 중에서 제일 먼저 창조된 것이 식물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만물의 생성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싸워봤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창조론을 가지고 우기는 기독교나, 진화론을 가지고 반박하는 과학의 주장은 끝이 없습니다. 창조론은 영적인 차원에서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우주를 어떻게 지었는가를 알게 되면, 모든 삼라만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어떻게 지어졌는가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가에 대하여도 과학적인 근거를 댈 수 없습니다. 성경에 “흠으로 사람을 빚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흠으로 사람을 빚었는지, 그걸 빚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된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야, 이걸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었노라.” 하고 친구한테 얘기하시듯 알려 주시는 것

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창조론의 근원을 밝혀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기가 깃들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건 너무나도 엄청난 얘기로, 우리 인간들로서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역대 하나님의 종들을 이상 중에 대면할 때, 한 번도 당신의 정체를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계21:3) 앞으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을 뵈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는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순리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뭘 만드신 것이 아니고, 지구가 변천하도록 물체를 지어 가십니다. 그 변화를 진화라 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다만 진화가 먼저 되지 않고 창조가 먼저 됩니다. 진화는 유(有)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고, 창조는 무(無)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창조론이 앞서게 되는 겁니다. 진화와 창조는 이래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차이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넷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창1:14-19) 그렇다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창조하셔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

셨다고 말씀하신 건 또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사실상 태양과 달, 지구,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 혹은 은하계 등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생성되고 사라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망정, 이미 동시에 창조를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동시라고 하지 않고 일주일씩이나 걸리는 식으로 기록했는가? 하나님은 옛세 동안 일하시고 이레 째 되는 날에 쉬셨다, 하는 7수에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우주의 창조론을 7수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암암리에 7이라는 숫자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7수로 시작해서 7수로 마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달과 태양은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구에는 태양과 달이 비취지 않고 깜깜한 흑암이었느냐? 지구에 오늘날처럼 맑은 하늘이 펼쳐질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늘이 맑아지기까지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갈라놓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안개가 걷히면서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또 밤에는 달이 지구를 비추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해서 지구에는 일월성신이 성립된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 천지창조 중에서 네 번째 단계에 속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교류한 것은 6천 년이지만, 실제로 인간이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이 살아온 기간까지 합하

면 대단히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어서 영으로 화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과 방불한 존재가 되므로 빛의 속도로도 가지 못하는 엄청난 거리를 단숨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음부의 세계에 불과 얼마 안 걸려서 도착하는 겁니다. 지구의 시간으로는 빛의 속도로 몇 백억 광년을 가도 다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시간 반도 안 걸려서 도착하는 음부까지 빛의 속도로 몇 백억 년을 가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음부는 그렇게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신의 존재가 되는 관계로, 빛의 속도는 비교가 안 되는 빠른 속도로 도착을 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면 여러분은 우주가 지금처럼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우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날에 채소들이 자라고, 수목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낮에 태양이 보이지 않고, 밤에 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두꺼운 구름으로 하늘이 가려졌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강렬한 태양 빛이 없이 물과 공기만으로 만들어진 식물체라면 오늘날의 식물하고는 크게 다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지구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채소가 아니고 태양이 없을 때의 채소입니다. 오늘날에는 태양이 없으면 식물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태양도 달도 나타나기 전에 지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목이 자랐습니다. 이 엄청난 수목이 지구의 큰 변동으로 말미암아 모두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태양과 달이 비취면서 새로이 태어난 식물들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진 수목은 어디로 갔느냐? 지구의 변동에 의해서 바로 땅속에 들어가 변해서 만들어진 것이 석탄이요, 석유입니다. 과학자들이 그 연대를 따져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밑받침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비취기 전입니다.

그러면, 태양과 달이 비취기 전에 안개와 같은 것으로 에워싸여 있는 지구 안에서 식물이 자랐다면, 그것은 태양 없이 자라는 식물이니까 지금의 일반 나무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태양의 에너지를 많이 받지 않고도 자랄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식물은 생명력이 대단히 강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인간들에게 굉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원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런 시대가 정화되고 사라지면서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나운 폭풍이 몰아치고, 화산이 터져 육지가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 기간이 지나 평온해질 때, 비로소 태양은 낮에 지구를 비추고, 밤에는 달이 지구를 비췄습니다. 이때는 이미 지금의 지구와 같습니다. 징조와 사시가 정해진 겁니다. 사시는 사계절을 말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니 지구가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 태양계 안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태양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

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순서를 잡아 놓은 겁니다. 그 전에는 전체가 우주 공간에서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화시켜 사시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태양과의 거리도 정확히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금성 쪽에 가까이 가면 우리는 다 타 죽습니다. 섭씨 500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알맞은 곳에 지구를 배치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만일 지구에 연한을 365일이 아니고, 3560일에 한 바퀴를 돌아가게 맞추셨다면, 우리의 1년은 3650일이 지나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65일로 돌게끔 맞추셨던 것입니다. 그걸 12개월로 나누고 한 달을 30일로 나눠서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월일시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을 여호와께서 종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백성 중에 누가 아프면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학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법률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성경에서 큰 영향을 받고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면 태양과 달이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만든 시기에는 지구가 거의 완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태초의 지구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지러워 하나님이 수면 위로 다니시는 판이었습니다. 그 후 여

러 단계를 거쳐서 지구가 제 궤도에 올라서 1년이 365일, 하루가 24시간으로 형성되었을 적에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에덴동산에 살게 하신 것은 넷째 날에 속하는 시대에서 수억 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연대의 근사치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가공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행으로 여깁니다. 제가 오늘날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네 번째가 되는 날에 비로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동안에 지구에는 엄청난 변동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이라는 게 간단한 것 같아도 그 기간이 수억 년입니다. ‘둘째 날’도 수억 년이고. 이렇게 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45억 년이 걸렸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유대교는 새 언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이루셨다. 그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감람나무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 책을 받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며,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기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